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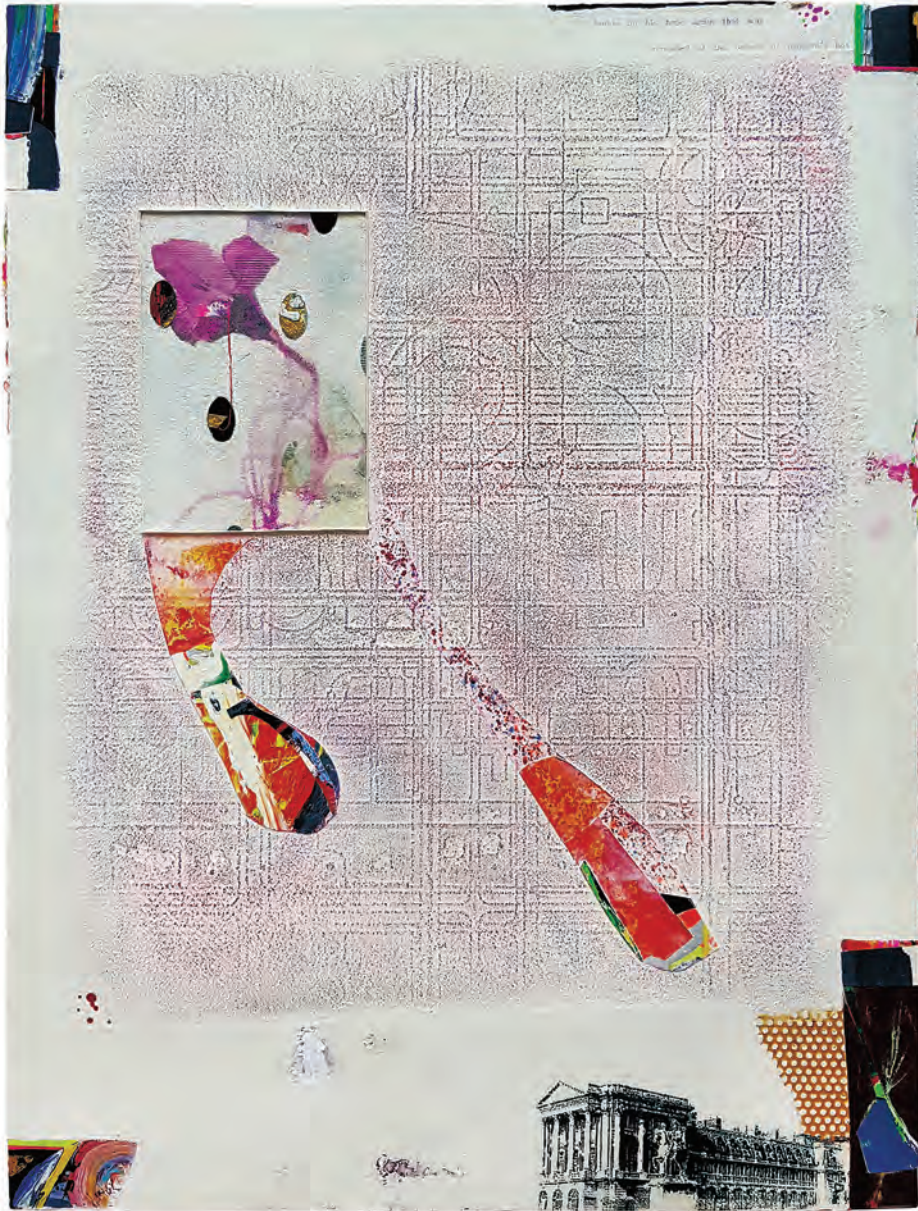


우수콘텐츠잡지
2023

ART BUSAN MONTHLY

예술부산

2025·1
VOL.235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술 아카데미

: 수강생 모집 중

모집일정 수시모집 또는 분기별 모집
누구나 신청가능

신청방법 전화 및 방문 접수

수강기간 2025년 1월 - 12월 (3개월씩 모집)
(1분기 1-3월, 2분기 4-6월
3분기 7-9월, 4분기 10-12월)

계좌번호 부산은행 310-01-001290-2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문의전화 070-4206-9140

| 순번 | 프로그램명 | 모집인원 | 요일 및 시간 | 장소 | 수강료 |
|----|-------------|------|---------------------|--------|-----------|
| 1 | 팡팡노래교실 | 200명 | 화) 13:30-15:30 | 1층 공연장 | *3개월3만원 |
| 2 | 한국무용교실 | 20명 | 목) 13:00-14:50(심화반) | 4층 연습실 | 3개월 12만원 |
| 3 | | 20명 | 목) 16:00-17:50(기초반) | 4층 연습실 | 3개월 12만원 |
| 4 | 아랑고고장구 | 20명 | 수) 13:00-14:30 | 2층 연습실 | 3개월 9만원 |
| 5 | 댄스스포츠 | 20명 | 화,목) 10:00-10:50 | 4층 연습실 | 3개월 9만원 |
| 6 | 라인댄스 | 20명 | 화,목) 11:00-11:50 | 4층 연습실 | 3개월 9만원 |
| 7 | 웰빙댄스 | 20명 | 월) 10:00-11:30 | 4층 연습실 | 3개월 9만원 |
| 8 | 너도나도 방송댄스 | 20명 | 수) 10:00-11:50 | 4층 연습실 | 3개월 9만원 |
| 9 | 가곡교실 | 20명 | 수) 14:30-16:00 | 2층 연습실 | *3개월 15만원 |
| 10 | 서양화 교실 | 20명 | 화) 10:00-11:50 | 4층 회의실 | *3개월 15만원 |
| 11 | 사진아카데미(초급반) | 20명 | 목) 10:00-11:50 | 4층 회의실 | *4개월 12만원 |

* 수강료 외 재료비, 반주비, 교재비 별도
* 일정 및 수강료의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산예술회관

부산예술회관예술단 합창단 신규단원 모집공고

부산예술회관 예술단-합창단에서는 부산 시민들에게 음악적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여 수준 높은 하모니로 문화예술 발전에 주역이 될 유능한 신규단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접수기간

25.1.~ 상시모집 중

접수방법

이메일, 방문 또는 우편접수

이메일

artbusan@hanmail.net

우편·방문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302호

모집원서

부산예술회관 홈페이지 다운로드

<http://www.bsart.or.kr>

1. 응시원서 1부
2. 개인정보수집 활용동의서 1부

문의 051-631-1377

모집내용

| 파트 | 인원 | 직책 | 실기 및 면접시험 |
|------|---------------------------|----------|-----------|
| 소프라노 | 각 파트별 00명 (총 35명이내) | 일반 단원 | 자유곡 1곡 |
| 알토 | | | |
| 테너 | | | |
| 베이스 | | | |

응시자격

합창단 활동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수 있는 만 39세 이하인 자

실기 및 면접시험 안내

신청서 접수 후 개별공지 예정

혜택

우수단원 표창

국,내외 공연 참여 기회 부여(우수단원 우선 참여)

외부 공연 참여 시 소정의 공연수당 지급

부산예술회관은

공연장, 전시실, 회의실, 연습실을 실비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부산예술회관은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이 순수한 열정과 참여로
대중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만나는 곳입니다.
문화적 향유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공연, 전시, 문화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무한한 창작공간이 되도록
다양한 즐거움과 행복 문화를 제공합니다.

부산예술회관 대관시설 면적

| | | | |
|--------|----------------|--------|---------|
| 공연장 | 597.56㎡ (240석) | | |
| 회의실 | 87.62㎡ | 3층 전시실 | 122.57㎡ |
| 4층 전시실 | 116.32㎡ | 4층 연습실 | 102.12㎡ |
| 2층 연습실 | 94.05㎡ | 1층 연습실 | 52.62㎡ |
| 지하주차장 | 약 60대 주차 가능 | | |

부산예술회관 홈페이지

www.bsart.or.kr

대표전화 051) 631-1377

대관문의 051) 612-1376



공연장 / 전시장 / 회의실 / 예술아카데미 / 야외광장

| SUNDAY | MONDAY | TUESDAY | WEDNESDAY | THURSDAY | FRIDAY | SATURDAY |
|--|---|--|---|---|---|--|
| | | | 1 | 2 댄스포츠티 라인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한국무용 교실 13시~18시(4층연습실) 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야간, 051)632-5888 | 3 | 4 |
| 5 아쿠포유 코스프레 공연 13시, 010-6374-9923 | 6 웰빙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 7 사진아카데미 전시 (3~4층, 심화반) 051)631-4111 김정현의 팡팡노래교실 13시30분~15시30분(공연장) 댄스포츠티 라인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 8 부산광역시 남구청 2025구정 실명화, 15시, 051)607-4112 사진아카데미 전시(3~4층, 심 화반), 051)631-4111 아랑고고장구 13시~14시30분(2층연습실) 가곡교실 14시30분~16시(2층연습실) 방송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부산사진작가협회 간사회 야간, 051)631-4111 | 9 사진아카데미 전시 (3~4층, 심화반) 051)631-4111 댄스포츠티 라인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한국무용 교실 13시~18시(4층연습실) 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야간, 051)632-5888 | 10 사진아카데미 전시 (3~4층, 심화반) 051)631-4111 미술협회 제7차 정기이사회 야간, 051)632-2400 | 11 부산음악협회 정기총회 09시, 051)634-1295 |
| 12 | 13 웰빙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 14 김정현의 팡팡노래교실 13시30분~15시30분(공연장) 댄스포츠티 라인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 15 아랑고고장구 13시~14시30분(2층연습실) 가곡교실 14시30분~16시(2층연습실) 방송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 16 댄스포츠티 라인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한국무용 교실 13시~18시(4층연습실) 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야간, 051)632-5888 | 17 부산문인협회 정기총회 15시, 051)632-5888 | 18 아쿠포유 코스프레 공연 13시, 010-6374-9923 부산국악협회 분과총회 오후, 051)644-5211 |
| 19 주식회사 조이컬처 2025 가족뮤지컬 (오즈의 마법사) 13시, 010-4950-3655 | 20 부산연극협회 정기총회 16시, 051)645-3759 관진숙 개인전 5st-look ART Grooming Kwak jin sook Exhibition(3층) 010-9342-5265 웰빙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 21 김정현의 팡팡노래교실 13시30분~15시30분(공연장) 댄스포츠티 라인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 22 이든음악학원 정기연주회 19시, 051)646-4540 관진숙 개인전 5st-look ART Grooming Kwak jin sook Exhibition(3층) 010-9342-5265 아랑고고장구 13시~14시30분(2층연습실) 가곡교실 14시 30분~16시(2층연습실) 방송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 23 부산미술협회 정기총회 15시, 051)632-2400 관진숙 개인전 5st-look ART Grooming Kwak jin sook Exhibition(3층) 010-9342-5265 댄스포츠티 라인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한국무용 교실 13시~18시(4층연습실) 부산문인협회 부산문인대학 야간, 051)632-5888 | 24 관진숙 개인전 5st-look ART Grooming Kwak jin sook Exhibition(3층) 010-9342-5265 | 25 엠비제트컴퍼니 도란도란 이야기보따리 02)6956-5699 14시(1회) / 16시(2회) 관진숙 개인전 5st-look ART Grooming Kwak jin sook Exhibition(3층) 010-9342-5265 |
| 26 태육엔터테인먼트 2025 신춘콘서트 14시, 051)949-2468 관진숙 개인전 5st-look ART Grooming Kwak jin sook Exhibition(3층) 010-9342-5265 | 27 웰빙댄스 10시~12시(4층연습실) | 28 | 29 | 30 | 31 | |



ART BUSAN MONTHLY VOL.235

2025 JANUARY 1

CONTENTS

신년인사

- 08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
- 09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안성민
- 10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오수연
- 11 부산예총 임원 및 단위협회장

예서제서

- 16 2024 굿바이송년 _ 정혜주
- 22 예술의 흔적 _ 이건희
- 26 생활과 예술을 잇다 - 예술있지 _ 정혜주
- 28 사제동행(師弟同行) 프로젝트 VII <춤-同心>
- 스승과 제자가 펼쳐놓은 춤의 에너지 _ 이효민
- 30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 K-MUSIC과 함께하는 가을밤의 판타지 _ 정혜주
- 32 제43회 부산전국사진촬영대회 수상전
- 34 부산시립미술관 메타버스

포토에세이

- 36 감포항 _ 윤영중



표지_ 최학보

- 개인전 26회(서울, 대구, 부산, 북경)
- 정수미술대전 대상, 부산미술대전 대상
-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3회, 입선 5회(과천/국립현대미술관)
- 현대미술의 시선전(양평/양평군립미술관)
- 대상 없는 대상의 논리전(부산/부산시립미술관)
- 제14회 한-중 일국제미술가전(중국/내강사범대학교 미술관)
- 아트부산(부산/백스코), 홍콩 어포더블 아트페어(홍콩/컨벤션 전시센터)
- 현) 한국미술협회 회원, 대한민국미술대전, 정수미술대전 초대작가, 사)한국미술협회 국제교류위원장, 한-중 일국제미술가협회 회장

Pandora's box _ Mixed media, 79.0×114.5cm, 2021



時雨일기

40 바늘, 혹은 물음표 _ 문경희

인물포커스

44 부산아이디발레단 대표 이주호 _ 정혜주

예인탐방

46 피아니스트 김병기 _ 신용욱

예술가열전 228

48 우남^{祐男} 김기남 화백 _ 권오혁

손으로 쓴 문학

52 겨울 나무 _ 김달현

들어다보기

54 미술/ 백남준, 백남준, 그리고 백남준 _ 이상수

60 영화/ (사랑해!) 테크노 _ 김민우

62 음악/ 피아노 앙상블 무미건조^{舞美鍵趙} _ 유영욱

64 미술/ 청년 예술인 후원을 위한 기획전시 'fun_인연' _ 구본호

기획연재

66 건축과 서예Ⅶ

- 근대 범어사의 위상을 반영하는 세 개의 현판 범어사 조계문 _ 이현주

70 '역사적 사실 소재', 그리고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_ 심수화

74 예총-전사-공연 뉴스

79 신간 안내

82 메세나 광장 & 정기구독회원 모집

2025년 1월 통권 235 <http://www.artpusan.or.kr>

1997년 10월 15일 정기간행물 등록(2011년 8월 31일 변경등록번호 부산라-01255)

발행일_ 2024년 12월 27일 발행처_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주소_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78 부산예술회관

전화_ 051)612-1372 팩스_ 051)631-1378 이메일_ artbusan1997@naver.com

발행인 겸 편집인_ 오수연 편집고문_ 이봉두(건축가회), 강명옥(국악협회), 김갑용(무용협회), 이석래(문인협회), 최장락(미술협회), 강종관(사진작가협회),

이정남(연극협회), 안규성(연예예술인협회), 서영조(영화인협회), 권성은(음악협회)

편집기자_ 이건희 객원기자_ 신용욱, 정혜주 디자인_ 두손컴 제호_ 김종문

※ 본지는 부산광역시로부터 발간비 지원을 받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내용은 부산예총의 의사와 다를 수 있습니다.



2025 을사년, 진정한 분권과 균형으로 글로벌 문화예술 도시로 도약합시다

부산광역시장 박형준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문화예술인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부산의 문화예술을 대표하는 종합 월간지 『예술부산』 독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축하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어려웠던 모든 기억을 묵은해에 흘려보내고 새로운 꿈과 희망을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간이 우리 앞에 다시 놓였습니다. 설렘과 기대로 새로운 1년을 맞이합시다. 2025년에는 우리 부산이 혁신과 행복, '글로벌 허브 도시'와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이라는 원대한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것입니다. 문화예술인 여러분과 『예술부산』의 독자 여러분도 그동안 노력해 오신 만큼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 부산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글로벌 문화예술 도시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 왔습니다. 부산이 가진 독특한 문화유산과 현대적 감각이 결합한 부산비엔날레부터 부산국제영화제,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 부산예술제, 부산미술대전, 2024년 처음 출범한 페스티벌 시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들이 국내외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K-컬처 뿐만 아니라 부산만의 정서를 담은 B-컬처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2025년을 글로벌 문화예술 도시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더 혁신적이고 다채로운 문화예술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관을 앞둔 부산콘서트홀은 품격 있는

부산 문화예술의 오늘을 제시하고 미래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부산오페라하우스와 이기대 문화예술공원 같은 대규모 기반 시설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예술 정책을 시행해 나감에 있어 시민과 예술가 여러분의 목소리도 충분히 듣고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 문화예술인 여러분!

우리 부산은 문화예술의 자양분이 그 어느 도시보다 풍부한 도시입니다.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도시의 특질은 문화의 다양성과 특유의 활기를 낳았습니다. 문화예술의 수준이 곧 글로벌 허브 도시의 기준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메세나 운동이 이어지고, 기반 시설도 확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만 하며 삶을 일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전시나 공연을 보기 위해 따로 차비를 들여서 서울로, 수도권으로, 다른 지역 도시로 원정을 간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 시는 글로벌 허브 도시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이 문화예술이라는 강력한 의지 아래 더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진정한 분권과 혁신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술이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 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부산의 안과 밖, 하드웨어와 콘텐츠 모두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2025년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앞으로도 우리 시는 항상 여러분 가까이 있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부산, 예술인들이 아름다운 예술문화를 꽃피우는 도시로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안성민

존경하는 부산 예술인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묵은해가 가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은 을사년 푸른 뱀띠 해입니다. 작년 한 해 전쟁의 불길에 세계를 뒤흔들고 고금리·고유가로 인한 경제 불황으로 민생이 어려웠습니다. 푸른 뱀띠 새해에는 성장을 위해 스스로 껌질을 벗으며 탈피의 고통을 감내하는 뱀의 모습처럼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성취와 도약의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부산예총)는 부산 예술 전체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예술 단체로 예술인들이 역량을 펼치고 위상을 꽃피울 수 있는 견고한 토대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예총은 오랜 역사만큼 지역의 예술 발전은 물론 해외 자매결연 도시와의 적극적인 교류로 부산 예술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해마다 풍성한 축제와 행사로 부산 시민에 수준이 높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산 예술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문화도시 부산에 어울리는 눈부신 성과를 보여주고 계신 부산예총의 열정과 헌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 드립니다.

부산예총은 지난 한 해에도 다양한 무대를 성대히 마련해주셨습니다. 자매도시 후쿠오카의 전통예술과 우리 국악관현악의 협연이 화려했던 부산 예술제와 전시, 체험, 공연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갈매랑 축제, 부산의 청소년들에게 예술적 감각과 기량을 선보일 기회를 제공한 청소년예술제 등 부산의 대표 문화 예술 행사를 선도했습니다. 지역 발전에서 문화의 활성화는 도시 수준을 보여주

는 중요한 지표로 부산예총의 주요한 성과는 부산의 미래에도 중요한 상징이 될 것입니다.

부산은 글로벌 허브 도시로의 대도약을 앞두고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류, 금융, 신산업 분야의 성장과 발전을 토대로 세계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포부입니다. 부산은 역동적인 문화 예술 도시로 발돋움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오페라하우스, 부산콘서트홀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이는 부산 문화 예술의 텃밭이 되어 문화콘텐츠의 발전과 확대를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때 문화의 불모지였던 부산이 문화 예술 도시라는 찬란한 이름으로 만개하기까지 땀과 열정을 바쳐 지역 예술의 꽃을 피워 온 부산 예술인 여러분의 공로가 큼니다. 부산 예술인 여러분의 변함없는 노력과 지역 사랑 마음이 오늘날 부산 예술의 저력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산 미술의 역사와 발전에 든든한 토대가 되어주고 계신 부산예총과 예술인 여러분의 행진을 더욱 응원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또한 부산이 진정한 예술문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우뚝 설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아름다운 예술문화를 꽃피울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며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의 무궁한 발전과 문화 예술을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 시민과 함께하는 예술로 삶이 풍요로운 도시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회장 오수연

부산 예술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5 을사년乙巳年은 여러분에게 더욱 빛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열정과 창의력은 부산 예술계를 빛내고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 힘이 됩니다. 새해에는 새로운 도전과 성취를 이루며, 더욱 높은 곳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산시는 2025년을 글로벌 허브 도시로 한걸음 가까이 다가가는 해로, '글로벌 문화예술 도시'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선포하고, 혁신적이고 다채로운 문화예술 활동과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 부산 콘서트홀 개관, 부산오페라하우스, 문화예술공원 정책 추진은 문화와 예술과 혁신을 하나의 그릇에 담을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글로벌허브 도시로 나아가는 마지막 퍼즐이 문화예술이라고 인식하고, 예술은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 '생활이 곧 예술'이 되기 위함이 핵심입니다.

이런 부산시의 문화예술정책에 발맞추어 부산예총은 문화 예술로 삶이 더 풍요로운 도시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부산의 문화적 매력과 예술을 세계로 알리고, 예술인들의 꿈을 실현할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예술 축제를 개최하여 국제적인 예술가들과 협업할 기회를 만들고, 우수한 예술적 역량을 세계로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로벌 허브 도시, 품격 있는 문화예술 도시, 수준 높은 문화

향유 도시, 부산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술을 통해 부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예술인이 자유롭게 창작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서로 다른 장르와 분야 간의 교류와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도록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예술인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소통하는 문화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예술계에 활동하는 젊은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방향, 정책 제안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양한 공연, 세미나, 전시 등 시민과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올해에는 대한민국 예술축전이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이는 문화예술 향유 및 신인 예술가 발굴에 기여하고, 예술과 체육의 융합적 시너지를 확대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로운 도전과 성취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예술에 대한 열정과 노력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부산예총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예술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하게 해주는 것'이라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말처럼, 예술로 무한히 상상하고, 예술로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김인숙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수석부회장

2024년은 다사다난한 해였습니다. 부산예총은 많은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예술을 통한 소통과 교감을 이어왔습니다. 여러분의 높은 관심과 성원 덕분에 우리는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깊은 감사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함께 나아갈 길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집니다. 2025년은 더욱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예술의 길을 열어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작품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예술의 힘으로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예술의 길과 힘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새해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강종관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회장(부산사진작가협회 회장)

친애하는 부산사진작가협회 회원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에는 많은 열정과 노력을 통해 우리 회원님들의 작품이 더욱 빛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더 많은 창작과 발표의 장을 마련하고 우리 사진작가협회가 한층 더 발전하고 명예로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도전하여 부산의 사진 문화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우리 협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참여로 성장합니다.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권성은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부회장(부산음악협회 회장)

부산음악협회 회원 여러분과 음악을 사랑하는 모든 분께, 희망과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을사년 乙巳年의 문을 활짝 열며 신년 인사를 드립니다. 2025년에도 부산음악협회는 음악을 통해 부산의 문화적 깊이를 더하고, 젊은 음악가들의 꿈을 지원하며, 다양한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예술적 공간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특히 지역 예술인들과의 협업을 확대하고,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더 많이 기획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참여와 열정이 없이는 이러한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올 한 해도 서로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부산 음악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길 기대합니다. 새해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모두가 음악 속에서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범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감사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는 정치·사회·경제 전반에 짙은 안개로 방향을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한 줄기 빛과 같은 낭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시와 소설을 쓰는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소식입니다. 온 국민의 염원이었던 수상 소식은 우리 예술인들에게는 최고의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문학을 추구하는 저에게는 꿈속의 꿈이 현실이 된 것만 같아 아직도 가슴이 뭉칩니다. 예술은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즐거움이 되고 위안과 격려가 되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영역에서 예술의 혼을 담고 무한 질주를 하는 예술인 여러분, 새해에는 크고 작은 소망 꼭 이루는 성취의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신호국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감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올해는 을사년, 재생과 유연함 그리고 지혜를 상징하는 뱀의 해입니다. 특히 '푸른 뱀의 해'로 푸른색은 평화와 안정, 그리고 희망을 의미합니다. 이 상징들이 결합된 2025년은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특히 예술을 사랑하는 예술인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마음껏 창작하고, 창작된 예술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연으로 나누고, 기쁨을 함께 하는 문화예술 생활을 즐기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5년에도 부산예술과 늘 함께해 주시길 기대하며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예술의 꽃을 한층 피우시길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봉두 부산건축가회 회장

2024년, 부산 예술계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술 도시 부산'을 향한 여정을 한층 더 진전시켰습니다. 교류와 소통을 통해 부산의 문화적 토대는 더욱 튼튼해졌으며, 2025년에는 이 기초 위에 시민 모두가 예술을 함께 나누고, 부산이 글로벌 예술 도시로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랍니다. 부산건축가회는 지난해, 예술인들의 깊은 관심과 응원 속에 많은 프로젝트를 성과 있게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협력과 지지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올해도 예술과 건축이 하나 되어 풍성한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산이 예술과 건축이 함께 숨 쉬는 도시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손을 맞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강명옥 부산국악협회 회장

새로운 희망을 품고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이 밝았습니다.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성서의 표현에서 보듯, 뱀은 현명하고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져 왔습니다. 또한 뱀은 성장을 위한 허물 벗음을 통해 불사의 상징이자 재생, 영생을 뜻하며, ‘업 신앙’에서는 다산과 풍요, 재물의 의미로 풀이하기도 합니다. 푸른 뱀의 지혜와 유연함을 본받아 각자의 장점을 조화롭게 결합하여 한 해의 계획을 세운다면 도전과 성장을 통해 더없이 풍성하고 의미 있는 2025년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와 성장을 통해 밝고 희망찬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는 을사년, 국악의 흥과 신명의 기운을 가슴 깊이 느끼며 마음과 몸 또한 더욱 가볍고 활기차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국악의 깊은 울림처럼 우리 삶도 더욱 풍요롭고 뜻깊은 여정을 이어가길 기원합니다.



김갑용 부산무용협회 회장

어수선한 지난해를 마음에 담고 을사년^{2025年} 새해를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혼을 보고, 맥을 잇고, 몸을 수고롭게 하는 것이 예술의 참 의미인 것 같습니다. 부산 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세상일이 먼지처럼 사라져도 춤은 남고 사람도 또 남을 겁니다. 한 사람의 춤 그림자 속에는 내면적 사고의 필요성을 생각해 봅니다. 푸른 뱀의 해에는 내려놓는 심연의 춤 안으로, 예술 속으로 침착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고 가는 것이 시작과 끝은 없지만 새해에는 우리 부산무용협회의 춤꾼들이 훨훨 날아 힘들과 아픔에서 벗어나 아름답게 꿈꾸고, 꿈을 이루는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부산예총 가족들의 안녕과 번영 또한 소망합니다.



이석래 부산문인협회 회장

마지막 남은 잎새마저 떨어지고 없는 어둠을 벗겨 낸 새 아침이 밝아 왔습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마음에 빗금 하나 긁는 일’이라고 말을 한 시인도 있습니다. 지난날 어디선가 삼백예순 개 빗금을 그은 달력을 본 적이 있었는데 묻지는 않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기다리는 날일 수도 안심의 날일 수도 아니면 수고한 나에게 인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억 속의 그 집은 작고 아늑했던 바닷가 어부의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부인 남편은 편안한 얼굴이었고 부인은 매우 어진 얼굴로 기억합니다. “밤바다 은 달빛/물결이 은빛이다/원하는 부와 명예 부질없이 달려온 길/내 욕망/다 채울 대상 어디에도 없었다//달리는 차량처럼/부딪듯 섬광처럼/철들지 못한 내 생 저돌적으로 달려왔다/아쉽고 억울한들 누구와/가슴 트고 나눌까//느긋한 생각 갖고 난만^難을 즐길 수밖에/때 되면 가볍게 한가롭게 살고/프다/술잔에 든 달빛 함께/구름 한 조각 함께” 저의 출시^(「욕망이란 자동차」)로 새해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최장락 부산미술협회 회장

푸른 뱀의 기운처럼 유연한 에너지를 가지고 노력의 결실을 보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2024년을 돌아보면, (사)부산미술협회는 부산 지역미술가들의 선도적이고 실험적인 창작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주최하였고, 글로컬 미술 도시를 향한 여정의 시작을 알리며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부산 미술계의 큰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원로 작가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열정적인 성원과 관심의 결과물입니다. 2025년에도 부산미술협회는 부산 미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시대를 선도할 새로운 시도가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또한, 예술이 모여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가 국제도시로서의 미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현안과 전략을 모색하며 발전할 수 있는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정남 부산연극협회 회장

올사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새해를 맞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부산연극협회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더욱 활발한 활동과 창의적인 기획을 통해 부산 연극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특히, 젊은 예술가들의 발굴과 지원, 지역 연극의 활성화, 축제로 자리매김한 부산연극제, 그리고 국제 교류를 확대하여 부산 연극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연극은 사람의 삶과 감정을 오롯이 담아내는 거울이며, 동시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열쇠입니다. 한 해 동안 연극을 통해 우리가 모두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꿈을 통해 희망을 찾고, 더 나은 예술인의 행복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규성 부산연예예술인협회 회장

2024년 갑진년은 부산연예예술인협회로서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위기를 기회로 승화한 자랑스러운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올사년에는 축적된 에너지를 원동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협회가 되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부산 시민과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소년 가요 및 댄스 경연대회,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부산실버가요제, 그리고 부산을 알리고 상징할 수 있는 부산항해양가요제를 개최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대중가요가 우리 가까이 있고 삶을 더욱 풍요롭고 보람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즐거움을 주는 뜻깊은 행사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협회는 항상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영조 부산영화인협회 회장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향한 희망을 품고 새해의 첫 빛이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2025년을 상징하는 을사년은 푸른 뱀의 지혜와 신중함, 변화, 재생의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푸른색은 희망과 성장을 의미하며, 뱀의 유연함과 지혜는 우리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새로운 기회를 선물할 것입니다. 특히, '사(巳)'는 '식물이 싹을 틔우고 무성히 자라나는 시기'를 의미하는 만큼 모든 이가 한층 더 성장하고 번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영화는 때때로 어두운 면을 다루나 사랑과 인내를 통해 문제를 극복하며 긍정적인 변화로 완성해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2025년에는 우리 모두, 직면하는 문제와 도전 앞에서 푸른 뱀의 기운과 희망을 잃지 않는 강건함으로 힘을 합쳐 한 걸음씩 나아가며 더 나은 미래 만들어 가길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최정애 부산꽃예술작가협회 회장

존경하는 부산문화예술인 여러분, 을사년 새해를 맞아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25년 푸른 뱀띠의 해로 뱀은 지혜로운 동물로 여겨지며, 신성한 존재이며 성장과 창조를 뜻합니다. 협회는 한국 꽃예술의 전통문화 발전을 계승하면서 글로벌한 국내외 꽃예술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가들의 권익옹호 및 친선 도모 국제 교류 활성화 등 시민의 정서 생활 향상과 함께 부산을 아름다운 꽃예술의 문화도시로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산 지역의 꽃예술문화발전과 꽃예술인 화합에 앞장서는 단체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더욱더 발전하는 협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뜻하시는 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미자 부산차문화진흥원 회장

올해는 을사년 푸른 뱀의 해입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짓는 능력을 지닌 지혜로운 동물로 여겨지는 뱀, 그리고 건강과 안전을 의미하는 푸른색이 결합 된 만큼 올해는 마음의 평화와 깊은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술 도시 부산의 열두 달은 늘 문화행사와 예술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 그 순간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간 예술부산은 1997년에 창간되어 27년간 매월 부산 시민 곁을 찾아왔습니다. 다양한 예술 소식과 스토리를 실어 날랐습니다. 부산 문화예술의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걸은 시간보다 훨씬 더 오래도록 우리 곁에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힘들 때면 주변을 돌아봅시다. 가까이 손을 내밀고 서로에게 위로를 건넵시다. 그리고 나를 위해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소확행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안정을 기원합니다.

| 예서제서

2024 부산예술회관 기획

굿바이 송년 good-bye 2024

2024. 12. 9. / 12. 오후 7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가면(Mask) 쓰고 부산예술회관 가면 '내가 주인공'인 <2024 굿바이 송년>이 올해도 어김 없이 부산 시민들과 함께 12월을 성대하게 축하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매혹적인 축제로 알려진 베니스 가면 축제를 모티브로 해 콜롬비나(Colombina(눈, 코, 턱 위를 가리는 반쪽 가면))를 쓰고 한복을 곁들여 화려한 연주자의 등장으로 공연장은 순식간에 '부산예총 카니발'의 분위기로 가득찼다.

여는소리 현&조선버전



1부(2024. 12. 9.) 가야금 병창에 드럼 박자가 곁들여진 재즈풍의 「쾌지나 칭칭 나네」(번재벽 편곡)가 첫 곡으로 울려 퍼졌다. 창자의 느린 율조림은 한해의 저음과 낮고 무거운 겨울의 밤을 조심스레 흘러보냈다. 잔별과 희망, 밝은 달까지 움켜쥐며 휘몰아친 흥겨운 장단은 '쾌재라快哉'라는 우리 고유의 감탄사를 연발하며 관객에게 '신난다', '좋~구나', '시원하다'의 메시지를 아낌없이 선사했다.

[조선버전]은 「여행을 떠나요」(조용필)와 「붉은 노을」(이문세)을 연이어 연주했다. 음을 공글리며 감싸 안는 국악기의 협연 속에 공명통을 통해 울려 나오는 해금의 독특한 비성(鼻聲)이 매력을 발산했다. 공연은 금세 관객과 대화의 물꼬를 트는데 성공하며 여기저기서 연신 음을 흥얼거리며 박수와 함께 에너지를 채워나갔다. 노래의 부재를 채우기 위해 다시 등장한 [여는소리 현]은 「사랑가」(역스)와 「신나는 아리랑」(조선버전)을 멋들어지게 부르며 부채짓으로 신바람을 몰아갔다. 첫 무대는 대중들과 한 공간에서 온전히 즐길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며 오로지 예술이기에 가능한 화합의 장을 이뤘다.

부산연극협회에서는 단편극 2편을 준비했다. 인간의 위선과 탐욕에 대한 유틸트 넘치는 프랑스의 고전 희극 <강부자 시집 보내기>가 무대에 올랐다. 황혼의 나이에 접어든 돈많은 자린고비 강부자 역을, 이날 사회를 맡은 김지현이 소화해내며 무대 위를 종횡무진했다. 젊고 건장한 도지식의 방탕한 결혼생활을 예고하는 10가지 결혼서약은 관객의 낭독으로 진행해 객석과 무대의 연결점을 그려 나갔다. 두 번째 극은 [극단 맥]의 동해안 오구굿과 한국의 가면극 등래야류 영감할미 과장을 집대성한 <비나리>로 이어졌다. 이 작품은 전통의 틀을 과감하게 해체해 예술적 가치를 더한 것으로 세계적인 관심사인 동양사상-사머니즘을 토대로 한국적 연극예술로 완성했다. 망자의 혼을 달래며 죽은 자의 넋을 위로하고, 산자들을 위한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굿의 형태는 사라진 우리 장례문화의 예술적 가치를 발견하고 2025년 을사년의 평안무사(平安無事)를 함께 소망했다.





부산시티발레단(BCBC)에서는 <The Sleeping Beauty> 중 3막 결혼식 장면의 그랑파드되를 무대에 올려 고전발레의 진수를 선보였다. 오로라 공주와 데지레 왕자의 결혼식 피로연 중 사랑의 춤이 펼쳐지는 하이라이트 부분을 사랑스럽고 품위 있는 발레리나와 발레리노의 돋보이는 우아함으로 장식했다. 연이은 <꽃의 왈츠>에서는 <호두까기인형> 2막 중 호두까기 왕자와 클라라가 과자나라에 도착해 각 나라의 디저트 요정들이 등장하는 장면으로, 그 중 꽃의 요정들이 춤을 추는 화려함으로 관객의 눈길을 사로 잡았다.





마지막은 나토안의 <레이저퍼포먼스>가 등장해 암전 속에서 '굿바이 송년'이라는 제목과 함께 강렬한 빛의 세상으로 순식간에 관객들을 끌어 당겼다. 이후 부산연예예술인협회에서는 차성연의 '여정'과 김상호의 '18세 순이' 색소폰 연주가 친숙한 대중음악으로 관객을 유혹했고, 정현아가 부른 '해바라기꽃', 백수정 'Tears'로 폭발력 있는 무대를 완성했다.

아이들을 데리고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굿바이 송년'에 참가했다는 시민은 "너무 재밌어서 또 왔다"라며 깜짝 퀴즈에도 참여해 연말 선물까지 한아름 받았다. 공연장 가

득한 식을 줄 모르는 열기는 앙코르의 외침에 색소폰 연주로 아쉬움을 달래며 1부의 마무리를 지었다.

2부(2024. 12. 12.) 첫날보다 더 많은, 약 240여 명의 관객이 공연장에 꽂 들어찼다. 전통과 퓨전음악을 넘나들며 소리의 세계를 연구하는 [소리그룹 누리]의 등장으로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소리와 사설을 넣어 재미있게 구성한 <난감한 밤>을 부른 김신영 이수연 강은미 소리꾼 3명은 고운 빛깔의 개량 한복과 머리에 올린 족두리로 앙증맞은 무대를 연출했다.

한 대의 피아노에 8명이 동시에 연주하며 오케스트라의 사운드를 재현한 피아노 앙상블 [무미건조舞美鍵趣]팀은 새로운 퍼포먼스를 조합해 클래식 현대적 변형을 독창적인 방식으로 보여주었다. 이에 연주자 유영옥은 현대인의 문제로 지적되는 일상의 도파민 중독의 해결책으로 예술을 제시하며 '예술의 쓸모'를 강조했다.

양상블 필슈파스는 대중들이 즐겨듣는 곡으로 'Besame Mucho', '하울의 움직이는 성', 'Libertango'를 선정해 피아노, 타악기, 바이올린, 클라리넷의 구성으로 차분하면서 서정적인 분위기를 선사한 후, 크리스마스 캐롤로 연말의 분위기를 장식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여인'이 등장했





팝 색소포니스트 고민석

다.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연상케하는 화려한 흰색 의상을 입은 관객이 열정적인 춤사위로 객석을 점령했다. 팝 색소포니스트 고민석은 객석 뒤편에서부터 관객 한명 한명과 눈을 맞추며 등장했다. 그의 무대 매너와 연주실력은 공연장 구석구석을 가득 채우며 연주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객석과 소통하는지를 보여주었다. 「Going Home」 「Loving You」 「라라라」 「붉은 노을」까지 이어진 파워풀한 연주는 마치 콘서트장을 방불케하는 분위기를 연출했다. 고난이도의 연주에 숨까지 참아가며 함께 호흡한 관객에게 고민석은 “숨 좀 쉬세요~”라는 멘트를 보냈고, 좌중에서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앙코르 공연과 함께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바탕 댄스파티를 벌였다.

팝 색소폰 연주가 무대를 휩쓸고 지나간 후, 과연 이것을 능가할만한 공연이 이어질 수 있을까 걱정하던 찰나, 잠시의 고민이 무색하게 국소림의 연주는 신선했다. 두 개의 줄로 이루어진 모습이 한국 전통악기 해금과 유사한 이호(二胡(일후))의 소리는 드넓은 초원을 달리는 천리마의 영상과 조화를 이루며 독특한 정서를 나타



국소림

났다. 중국의 변방인 초원을 지키는 기마병들이 적을 무찌르는 기술을 연마하는 모습을 「패전 만승」이라는 곡으로 용감하고 강인한 투혼이 담긴 중국의 문화를 음악으로 표현하였다. 이어진 「찐이야」 트롯으로 한국의 팬들의 인기까지 사로잡으며 그를 응원하기 위해 모인 열성적인 관객 으로부터 열띤 박수를 받았다.

고영호 지휘자가 이끄는 [부산예술회관 합창단은 「라라랜드 OST」와 「크리스마스 캐롤 메들리」를 무대에 올렸다. 예술인과 일반인이 함께 어우러진 단체인 만큼 화려한 기교를 내세우기 보다 크리스마스 소품과 작은 율동을 더한 화합적인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2부의 마지막은 [오페리움 한울]이 연말 분위기에 어울리는 「Hotel California」 「You Raise Me Up」 「Feliz Navidad」 3곡을 준비해 테너 김화수 양승엽과 바리톤 유용준의 목소리로 웅장함을 더했다.

‘굿바이 송년’은 한해를 마무리하며 시민들을 초대해 부산예술인들의 선물과 같은 풍성한 공연을 함께 나누는 행사이다. 일찍 내려앉은 겨울 밤, 서로에게 위로가 되며 따스한 시간을 음악, 춤, 극 예술로 가득 채운다. 예술인들의 열정과 관객들의 숨 가쁜 환호는 부산예술회관 로비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이날의 환희를 함께 축하했고, 부산예총 오수연 회장은 다가올 부산예술의 밝은 미래를 기원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모두에게 전했다.

글 정혜주



2024 부산예술회관기획

예술의 흔적

2024. 12. 18. 오전 10시 30분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어떤 흔적은 아픈 상처가 되지만 때로는 잊지 못할 좋은 추억이 되기도 한다. 흔적은 우리를 길 잃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와 반대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소중한 나침반이 되어주기도 한다. 지역의 원로 예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들이 남겼던 응송깊은 예술가로서의 흔적을 다 함께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는 단순히 추억을 회상하는 담소의 자리에 그치지 않는, 지역 예술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체성과 가능성을 알려주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영하를 밀도는 기온으로 한껏 서늘해진 12월 부산예술회관으로 원로 예술가들의 발걸음이 하나둘 이어졌다. 추운 날씨에 모두 두꺼운 옷으로 완전무장 하듯 보온에 온 신경을 쏟은 듯 보였지만 그 와중에도 멋스러운 중절모나 머플러 등으로 세련됨을 잃지 않는 모습들이었다. 부산예총은 지난 12월 18일, 지역의 원로 예술가를 초대하여 그들의 활발한 창작 활동을 기리고 지역 예술의 정체성을 살펴보고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예술의 흔적' 행사를 개최했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1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지역 예술계가 걸어온 흔적과 앞으로의 방향을 고민해 보길 바란다는 부산예총의 요청에 지역의 원로 예술가들은 한파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응해준 모습으로 부산예술회관을 찾았다. 로비에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악수를 청하는 예술가들의 얼굴은 오랜 설렘으로 가득했고 팔짱을 끼거나 손을 맞잡은 채로 본 행사가 진행되는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으로 들어갔다.

'예술의 흔적' 행사는 지난 11월 스무 명의 원로 예술가들을 만나 진행했던 인터뷰 기록을 한자리에서 영상으로 관람하고 의견을 나눠보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예총 산하의 예술협회 12곳 중 9곳을 선정해 해당 분야에 몸담고 있는 원로 예술가들의 인터뷰 기록을 영상으로 나누는 자리였고, 사려 깊은 마음으로 자리해 준 많은 예술가들 덕분에 행사 시작 전 내빈 소개만으로도 긴 호흡이 필요한 상황이 펼쳐지기도 했다. 각 협회원들은 호명될 때마다 무대로 나가 저마다의 참석 소회를 밝혔다. 각자 몸담아온 예술이 물씬 배어나는 짧고 긴 인사말은 저마다 다양한 깊이와 색채를 뽐내었지만, 예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만은 예술 분야를 불문하고 모든 예술가가 공유하고 있는 듯했다.



내빈 소개가 끝난 후 부산예총 오수연 회장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1년을 돌아보며 부산예총이 보다 나은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예술의 흔적’이라는 이름으로 각 협회 원로 예술가들을 한 자리에 모시게 됐다”고 말하며 “원로 예술가들이 오랜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활발한 창작 활동을 이어 나가는 자랑스러운 모습을 공유하고, 더 나아가 예술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과 발전 방향을 돌아켜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모든 원로 예술가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정제된 지역 예술의 안타까운 현실을 반추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는 말을 끝으로 오수연 회장은 인사말을 마쳤고, 원로 예술가들은 그의 명징하고 힘 있는 목소리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이후, 이날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영상이 상영됐다. ‘원로와의 대담’이라는 테마로 하는 이번 영상에는 ‘급변하는 환경 속 예술가로서 가져야 할 마음’, ‘장르의 발전과 그에 대한 우려’, 그리고 ‘장르를 이끌어 나아갈 후학 예술가들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 총 3가지 질문에 대한 원로 예술가들의 연료과 혜안이 담겨 있었다. 먼저 AI, NFT, 온라인 플랫폼 등

기술의 발전으로 재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예술가들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을 묻는 말에 건축가 한병우는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설계한 도면이 현장과 맞지 않는 경우’를 예시로 들며, 기술의 발달로 편리한 정보습득이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현장을 제대로 아는 것은 건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극작가 김문홍은 급변하는 시대일수록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연극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어떤 목적으로 연극에 빠져들었는지”를 늘 돌아켜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그는 말했다. 공통적으로 여러 원로 예술가들은 AI 등의 기술을 표현의 도구 중 하나로 활용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면서도, 예술인으로서의 본질과 철학, 인문학적 사고를 더 가꾸고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을 더했다. 급변하는 시대에 맞서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들은 그것의 가치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역사적 흔적으로 영상 속에 아로새겨져 있었다.

장르의 발전과 그에 따른 우려가 있느냐는 질문에 국악 예술가 신명언은, “현대 음악, 또 다른 장르와 협업을 통해 국악 공연을 많이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표출하기도 했다. “너무 다른 음악하고 섞이는 것을 보며 국악이 많이 퇴색되는 것을 느낀다”고 말하는 그는 “젊은 사람들이 진짜 우리 국악에 대해 모를 수도 있겠다”며 걱정을 표하기도 했다. 무용가 김정순 또한 “표현성을 확장하면서 관객의 이해도 도우면서 신선한 작품을 접할 때가 있어 흐뭇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만, 춤의 본질을 조금 잊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도 동시에 든다고도 했다. 아울러 “특색있는 것만 찾다 보니 배가 산으로 가는 경향이 있어, 젊은 안무자들이 춤의 본질을 항상 마음에 담으면서 작품 활동을 해주길 바란다”는 이야기도 함께 건네주었다. 시인 김석규는 장르의 발전으로 인한 장르의 보편화가 작품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작품으로서의 독자성이라든지 변별성이 없기 때문에, 그 작품에 작가의 이름을 가려놓고 보면 이게 어느 사람 작품인지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것에 대해 문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각별한 성찰’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분명 장르의 발전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움을 가져다줌으로써 예술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한다. 하지만 무분별한 인용과 변형은 오히려 유구한 역사와 생명을 위협할 수 있기에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여러 원로 예술가는 말했다.

마지막으로 원로 예술가들은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후학 예술가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음악가 최삼화는 “젊은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접근을 하다 보면 필경 좋은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고, 미술가 정태영 또한 “자신이 꼭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열심히 하길 바란다”며 그리하면 영광은 꼭 찾아올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어려움이 있어도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다”고 장담한다는 무용가 김정순의 말은 불안함과 막막함에 멈춰선 젊은 예술가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는 따뜻함이 배어있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오래된 격언을 다시 새기는 연예 예술가 김무영의 눈은 원로한 나이임에도 여전히 형형한 생기로 반짝거렸다.



영상 관람을 마친 원로 예술가들 사이에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누군가는 고마움을 표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지만, 결국 ‘지역의 예술 문화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는 측면에서는 그날 행사에 참석한 원로 예술가들 모두가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다. 장소를 카페로 옮긴 이후에도 예술과 예술가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은 계속됐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는 점심시간을 넘긴 햇살이 부드러운 기운으로 예술가들을 비쳤고 열띤 이야기를 나누는 원로 예술가들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다.

오랜 세월 수없이 많은 흔적을 남겨왔을 원로 예술인들은 이날 다시 한번 서로의 흔적을 확인하고 거기에 새로운 흔적을 더하며 한층 더 무르익어 갔다. 멀지 않은 날에, 이날 더해진 새로운 흔적이 길을 잃은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이끌어 줄 새로운 나침반과 이정표가 되리라는 것을 말해주듯 햇살은 더욱 부풀어 오르면서 공간을 빛으로 가득 채웠다.

글_이건희

2024 예술아카데미 발표회

생활과 예술을 잇다 **예술잇지**

2024. 12. 5. 오후 7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외모 첼! 무대 첼!

그야말로 '열정 있고, 능력 있는' 품미친(기량이 매우 좋은) 시민들이 부산예술회관 공연장에 모였다. 부산예술회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술아카데미 수강생들이다. 생활과 예술을 이어서 일상을 예술로 만드는, 진정으로 예술을 즐기는 수강생들이 한 해 동안 열정으로 다진 노력의 결실을 무대에 선보였다. 이번 <예술잇지>는 댄스스포츠, 라인댄스, 아랑고고장구, 웰빙댄스, 팡팡노래교실의 공연이 무대에 올라 서로의 기량을 선보이며 응원 속에 '예술 파티Party'를 즐겼다.

「한잔해」로 신명 난 무대를 연 아랑고고장구는 음악에 맞춰 장구가라과 울동을 선보이며 “달려보자..달려 달려 달려”의 가사로 관객의 흥을 돋웠다. 격렬하게 울려 퍼지는 장

구의 리듬과 하늘을 가로 찌르는 파워풀 한 안무가 중극장의 무대에 꽉 들어찼다. 다음은 댄스스포츠가 턱시도에 나 비벡타이로 한껏 멋 낸 남성과 화려한 드레스로 우아함을 자아낸 여성이 파트너가 되어 아름다운 <왈츠>로 무대를 누볐다. 동작의 순서를 맞추기 위해 현재에 오롯이 집중하며 진지한 표정으로 임하는 모습에서 예술가다운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팡팡노래교실 수강생 김명숙은 단정한 무대 매너로 「바람의 연가」를 불러 무대의 깊이를 더했으며, 서갑연은 「오늘같이 좋은 날」을 부르며 “어차피 인생이란 한 번뿐인데 웃으면 서(사랑하며)살아갑시다”란 노래 구절로 관객들의 마음에 한 번 뿐일 오늘을 충만하게 해주었다. 전 세계적으로 열풍인 「아





파트」에 맞춘 라인댄스의 공연은 객석에 앉아 있는 관객까지도 들썩이게 했다.

마지막은 팡팡노래교실 합창단 31명의 노래로 진행됐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사랑이 비를 맞아요」를 부르며 예술로 이룬 단합력을 여실히 드러냈으며, 「풍악을 울려라」에서는 이옥임이 담당하면서도 화려한 안무를 곁들여 성황리에 공연을 마무리했다.

예술은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더더욱 이 예술을 창조하는 자에게는 삶의 기쁨과 활기가 넘쳐남

을 <예술잇지> 무대를 통해 증명했다. 누군가에게는 힘들고 괴로울지 모를 인생이, 오늘 무대에 선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즐겁고 살맛 나는 예술 인생이다. 열정을 함께 나누고 도모하는 공간, 부산예술회관 예술아카데미는 시민들에게 활짝 열려있다.

글_정혜주

1 노래교실(단체) 2 라인댄스 3 아리랑고교장구
4 노래교실(솔로1) 5 노래교실(솔로2) 6 댄스스포츠1 7 댄스스포츠2



사제동행 프로젝트 VII <춤-同心>
스승과 제자가 펼쳐놓은 춤의 에너지

2024. 12. 12. 오후 7시 30분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통영기방입춤

부산여자대학교 BWC댄스컴퍼니의 사제동행 프로젝트 공연 이 어느새 7회째(2024. 12. 12. 오후 7시 30분,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를 맞았다. 최근 몇 해 공연을 챙겨보며 에너지를 받아 온 관객으로서,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나아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게 부담일 거라 생각했다. 그리고 그런 부담을 멋진 무대로 돌파해 내는 모습을 이 날 볼 수 있었다.

한겨울 날씨에도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을 찾은 관객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파트 1은 한국 춤, 파트 2는 외국 춤 및 실용무용으로 꾸며졌는데 승전무 보유자인 엄옥자 선생이故 정순남 선생에게 전수한 춤인 <통영기방입춤>(재구성 및 지도 김해성)이 첫 무대를 열었다. 예기조합 기녀들이 몸을 다스리며 추었던 춤답게 섬세한 발디딤과 손목놀음 등에서 우아함이 느껴지는 춤으로 부산대학교 미술학과 김윤찬 교수의 그림이 VCR 배경으로 잘 어우러지며 품격을 더했다. 국가

무형유산 승무 이수자인 정용진은 특별출연으로 남성 독무를 선보였다. 한성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을 그의 손녀 한영숙의 고증을 받아 정재만이 재안무했고 아들인 정용진이 계승하고 있는 <광대무(백사류)>는 줄타기하던 광대가 줄에서 내려와 부채를 들고 추는 춤이다. 라이브로 함께한 사물놀이 장단에 맞춰 무대를 누비는 모습에서 흥과 멋이 느껴졌다. 김모선류 소고춤을 군무로 재구성한 이날의 <소고춤>(재구성 및 지도 김은영)도 사물놀이와 함께했는데 감각적인 조명 연출에 공간을 부드럽고 역동적으로 사용한 춤 구성이 맞물려 탄성이 절로 나왔다. 한국무용은 자극이 아닌 기예로 접근할 때 지루하긴커녕 동작 하나하나를 음미하게 되는 듯하다. 어릴 적 짧게나마 한국무용을 배운 기억에, 몸의 중심을 잡는 것도 발걸음하는 법도 쉽지 않음을 알아서 더 그런지도 모르겠다.

파트 2의 시작은 강렬한 스트릿댄스였다. 부산국제공연예술마켓BPAM에서 2회 연속 인도네시아 국제탈춤페스티벌 IMF에 초청된 <호흡>(학생 공동안무)을 재구성한 것이다. 사람의 존재를 춤 리듬의 들숨, 날숨으로 고찰해 났다는 이 작품은, 종종 무용을 보며 깨닫게 되는 인간 육체의 숭고함이 느껴질 정도로 감흥이 깊었다. 이어진 벨리댄스 작품 <SPY>(안무 신유정) 역시 화려한 외연과 열정, 당당함이 댄스 스킬만큼이나 인상적이었다. 흔히 춤을 '자유로움'에 빚댄다. 성별 관계없이 얻을 수 있는 춤의 특권일 테지만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 춤은, 가장 당당하고 자유롭게 육체와 자아를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걸스 댄스가 대세가 된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다음은 국내에선 흔히 볼 수 없는 플라멩코 <Asturias with Castnet>(안무 이명자)였는데 스페인에서 에스파냐 댄스를 수학하고 온 만학도가 안무하고 공연했다. 세비야 골목 어귀 작은 공연장에 온 듯 클래식 기타 연주곡 아스투리아스가 흐르는 가운데 일견 엄숙하면서도 격정적인 안무가 화려하게 펼쳐졌다. 연속적으로 흘러가는 삶과 그 속에서 무한히 변화하는 것에 대해 표현한 <Cycle>(안무 이혜리)은 현대무용의 문법으로 제각각인 동시에 유기적인 무용수들의 춤을 구현했다. 의미 없이 걷거나 작은 차이를 보이며 반응하는 등 무용수들은 관객을 비현실로 초대했고 그때 드러나는 감상과 깨달음, 당혹감은 삶의 고민뿐 아니라 '변화에 대한 갈망까지 읽게 하는 듯했다. 다음으로 무대에 오

른 작품은 발레 <라 실피드 中 2막>(재안무 및 지도 김민교)이었다. 19세기 초 무용수 마리 탈리오나가 <라 실피드>의 요정 역으로 출연했을 때 발끝으로 서는 푸앵트 기술을 선보였고 이 깃털처럼 가볍고 아름다운 동작은 발레를 대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날도 발끝이 유려하게 선 발레리나들의 모습은 역시 인상 깊었다. 최다 인원인 24명이 출연한 스트릿댄스 <Hide>(안무 및 지도 박수화, 서택구)가 피날레를 장식했다. 안무의도는 '타인의 시선에 억눌리는 개인이 억압에서 해방되며 자신을 찾고자 함'인데 말 그대로 자유롭고 강렬하게 에너지를 쏟아내는 것이었다. 재학생으로 무대에 섰던 박수화가 지도교수로 무대를 꾸미는 점부터 최다 인원이 만드는 조화의 하모니, 에너지의 크기까지 피날레로 손색없는 무대였다. 무용수 못지않은 열정을 '파이팅' 넘치는 응원의 목소리로 보내는 학생 관객들도 매년 그랬듯 명불허전이였다.

공연 제목인 '춤-同心'에서 동심同心은 동심지언同心之言에서 비롯된 말로 '서로 마음을 합친 사람들의 언행은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는 뜻이다. 부산여자대학교 아동예술무용과 학과장이자 BWC댄스컴퍼니 예술감독인 김해성 교수를 비롯해 안무 및 지도를 한 교수진, 객원출연한 무용수들, 졸업생과 재학생 등이 마음을 합쳐 만든 공연이 자아낸 향기가 추운 계절, 관객들의 옷깃에 스며든 시간이었다.

글_이호민



라 실피드 中 2막



스트릿댄스_hide

부산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K-MUSIC과 함께하는 가을밤의 판타지

2024. 11. 27. 오후 7시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우리는 연말이 다가오면 유난히도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다양한 감정들이 교차하는 이 시기를 잘 보내기 위해 각종 행사와 모임으로 분주하다. 여럿이 어울려 들썩이는 마음을 나누다 보면 묵은 일들은 훌연히 떠나고 어느새 새로운 해가 뜬다. 잘 맞이하기 위해서 잘 보내는 11월의 끝자락, 추임새가 흘러넘치는 공연 한 편이 온 세상을 따뜻하게 만든다.

이미 공연장에는 국악 공연을 즐기는 이들로 자리가 채워지고 있었다. 어떻게 그들이 국악 공연의 애호가들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의아하겠지만, 그날 공연의 흥겨움에 한몫한 추임새가 증명했다. 『추임새에 인생한 세상』의 저자 서한범 교수는 우스갯소리로 추임새에 관한 일화를 전하면서, 추임새가 새의 이름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다. 우리는 추임새에 대해 잘 알고 있을까.

이날 사회를 맡은 정자경은 국악 공연은 추임새가 있어야 한다며, 추임새는 '칭찬'이라고 설명했다. '얼씨구, 으이, 좋다, 잘한다' 등의 흥을 돋워 주는 조흥사(助興詞)인 것이다. 판소리 공연에는 북을 치는 고수가 소리의 반주를 하면서 구절이나 대목 끝에서 추임새를 쥐 찡자가 흥이나 기운을 북돋울 수 있도록 돕는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고수의 역할이 북을 정확하게 치는 것뿐만 아니라 추임새를 적절하게 구사해야지만 명고수(名鼓手)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수의 추임새는 물론이거니와 '객석에서 터져 나오는 추임새는 소리꾼에게 그 시간을 버텨 나갈 수 있는 에너지 보충원'과 같다고 하는데, 마치 월드컵에서 붉은 악마들이 외치는 '오 필승 코리아'나 요즘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 야구 경기의 응원 문화가 우리 전통의 추임새에서 연유된 것이 아닐지 생각한다.



혹여나 처음 방문한 관객이 추임새를 함께 즐기지 못할까 봐 장단에 맞춰 손짓을 보내며 공연을 이끌어간 사회자의 진행은 연주자, 창자, 관객 모두를 하나로 만들었다.

공연의 시작은 월드 국악그룹 [초아밴드]가 문을 열었다. 피아노와 드럼이 사운드를 맞추고 대금, 소금, 피리, 태평소, 가야금이 서정적인 국악기의 선율을 드러냈다. 「Last Scene」은 우리나라 봄과 벚꽃을 표현한 곡으로 소금이 발랄하고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선사하며, 태평소가 만발한 벚꽃의 향연을 보여주듯 폭발적인 소리로 이어졌다. 서양음악의 오케스트라에서 감상되는 하모니가 아니라, 고요함을 뚫고 나오는 명징한 소리가 우리의 것을 실감 나게 했다.

“저 멀리 동해바다 외로운 섬 오늘도 거센 바람 불어오겠지……”

활짝 열린 판으로 구슬픈 「홀로 아리랑」 가락이 울려 퍼졌다. 우리 겨레에게 아리랑은 무엇일까. 정확한 어원도 유래도 모르는 슬프고도 흥겨운 아리랑 여행을 떠나 발길 닿는 곳으로 아리랑 고개를 넘고 또 넘었다.

‘인트로부터 공연에 흠뻑 취해버린 관객들은 연신 “잘한다~”의 추임새를 아끼지 않았다. 두 번째 ‘바닷속에서 만나는 판타지’는 판소리 「수궁가」를 모티브로 하여 한 편의 코믹극처

럼 진행됐다. 정자경과 박혜선의 가야금 병창은 오롯이 가야금 반주만으로 「수궁가」를 불러 창법이 더 맛깔스럽게 전달되며 추임새로 흥을 돋워 국악의 진맛을 드러냈다. 세 번째 프로그램 ‘festival’의 「아름다운 도시 부산」에서는 배경완 무용가의 부채춤이 무대에 올라 조명 아래 넘실대는 쪽빛 천과 함께 부산 바다의 물결을 우아한 몸짓으로 표현했다. 「쑥대머리」와 정자경작사·김영준작곡 「부산아리랑」까지 연이은 무대로 공연장은 흥이 오르고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연주자들과 관객들은 한마음으로 무대의 아쉬움을 앙코르 「장타령」으로 달래며 공연의 대단원을 마무리했다.

관객의 추임새는 그날의 판을 만들어내는 힘이다. 가을밤 판타지에 모인 70명 남짓한 관객들은 그야말로 축제 한판을 벌인 듯 절로 나오는 추임새를 쏟아부었다.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주고받는 추임새야말로 한국 전통문화의 본질이다. 대상의 가치를 알아보고 숨어있는 발광체를 자극하는 것, 찬사를 보내는 것, 감탄력은 우리 일상에서도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소리판에서 가장 이상적인 관객을 귀명창이라고 하는데, 특히나 추임새가 넘쳐났던 11월의 부산예술회관 소리판에는 귀명창이 넘쳐났다.

글_정혜주





1

제43회 부산전국사진촬영대회 수상전

2024. 12. 3. ~ 5. 부산예술회관 전시장

부산사진작가협회(회장 강종관)는 10월 5일 송정 죽도 문화광장에서 제43회 부산전국사진촬영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총 396점의 작품이 출품되어 공개 심사를 통해 16점의 입상작을 선정했으며, 12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부산예술회관 전시장에서 수상작 전시회를 열었다.

촬영대회는 바다에서 물질하는 해녀와 각설이, 현대무용가의 퍼포먼스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송정 해수욕장 주변의 관광자원 및 생활상을 촬영한 작품을 포함했다. 금상에 선정된 조경래(부산)의 「삶의 여정」은 '밀려오는 파도 속에서 두 해녀의 자연스러움 표정과 고숙셔터를 이용해 사실

적으로 현장감 있게 표현한 수작'이라는 심사평을 받았다. 은상을 수상한 백종기(부산)의 「인어공주의 환생」은 '의상과 소품이 바람에 휘날리는 순간을 생동감 있게 잘 포착하였으며, 색상 또한 안정감 있게 잘 표현'한 작품이다. 박말여(부산)의 「비누방울과 여인」은 '주제를 부각하기 위해 조리개를 개방하여 배경을 아웃포커싱으로 촬영함으로써 주제를 생동감 있게 표현한 수준 높은 작품'으로 은상에 선정됐다. 권순우(포항)의 「연주자」는 연주자와 무용가의 푸른 색감이 바다와 어우러져 선명한 색감으로 청량감을 전달하며, 이인재(부산)의 「바닷가에서」는 소품을 활용해 역동적인 포즈와 인물의 눈빛 등을 잘 포착했다. 무용수의 감정까지 포착한 이중소(영천)의 「송일정과 무용수」까지 세 작품은 동상을 차지했다.



강종관 회장은 “모두가 즐겨 찾는 송정해수욕장에서 아름다운 자연풍경과 특이한 소재와 모델로 참가자들의 가슴에 추억과 기쁨이 남기에 충분”했다고 전하며, 작품을 존중하고 격려하며 엄정한 심사를 거쳤음을 강조했다. 부산사진작가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부산전국사진촬영대회는 일반 사진 애호가 및 사진 동호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사진 문화 저변 확대와 부산의 사진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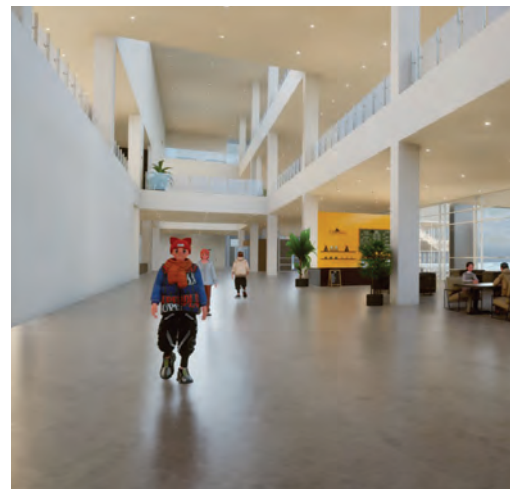
- 1 금상 조경래_삶의 여정
- 2 은상 백종기_인어공주의 환생
- 3 은상 박말여_비누방울과 여인
- 4 동상 권순우_연주자
- 5 동상 바닷가에서_이인재



부산시립미술관 메타버스

2024. 12. 24. ~ 부산시립미술관 메타버스 전관

부산시립미술관(관장 서진석)은 리노베이션 기간동안 지속 가능한 미술관을 선보이기 위해 '부산시립미술관 메타버스'를 12월 24일에 공개했다. 부산시립미술관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은오프라임)의 경계가 없는 새로운 세상의 혁신적 변화에 속도를 맞춰 지난 4월 게임 회사인 더크로싱랩과 메타버스 공동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해 개발한 것으로, 앞으로는 누구나 언제든지 가상의 공간에 접속해 자신이 보고 싶은 전시를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부산시립미술관 메타버스에는 부산시립미술관의 소장품을 활용해 기획·구성한 총 3개의 전시가 마련됐다. 이곳에서는 작가 108명의 작품 274점을 만나볼 수 있다.

전시 1. 컬렉션 99.999는 메타버스 속 이미지 감상의 특징점을 적극 활용해 부산시립미술관의 대표 소장품 99선을 고화질 이미지로 전달한다. 부산시립미술관은 1998년 개관 이래 2023년 기준 2,984점의 소장품을 수집하여 꾸준히 대중에게 작품을 소개하고 감상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전시에는 총 81명의 작가가 참여했으며, 학예연구사들의 친숙한 설명과 함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전시 2. 부산미술, 그 시작에는 김경 김천옥 이석우 임호 우신출 김윤민 김남배 한상돈 송혜수 오영재 조동벽 김원갑 이규옥 정인성 김종식 15인의 작가가 참여했다. 부산시립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부산미술 1세대 작가의 작품 총 156점을 선정, 부산의 시대상(사회상)과 더불어 부산미술의 시작점과 그 흐름을 되짚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시 3. BMA(Busan museum of art's Media Art)는 뉴미디어 작품 중 동시대 미술의 다양성과 한국 미디어아트의 본격적인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작품들이 전시된다. 특히, 부산시립미술관 메타버스 전관을 상영관 형태로 변화시켜 각 작품을 시

간과 공간 제약 없이 감상할 수 있다. 염지혜 전준호 전소정 장지아 김아영 정은영 김세진 서평주 이이남 김성연 박동주 조승호 12인의 작품 19점을 선보인다.

부산시립미술관 서진석 관장은 “전 지구의 모든 물질이 비물질로 전환되고 다양성, 전지구성, 융합성의 세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미술관의 정의도 진화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없는 새로운 세상에서 무한 지속과 확장의 미술관을 준비, 제안해야 하는 시대사적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지적하며, “부산시립미술관의 새로운 제안과 시도에 많은 응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다중 우주의 메타버스 세상에서 예술작품을 향유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메타버스 접속 방법은 시립미술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_051)740-2600 / 편집실, 사진_부산시립미술관 제공









감포항

아침을 연다.

나는 항상 바다를 보며 자라왔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칠흑 같은 어둠을 찾아 카메라와 함께 바다를 찾곤 한다.

1월이면 어김없이 찾는 감포항! 감포항은 2025년 개항 100주년을 맞이하는 경주 최대의 항구이다.

항구 주변에 항상 고깃배들이 드나들 때면

수많은 갈매기가 몰려와 춤을 춘다.

감포항 방파제는 검은사지 3층 석탑을 음각화 한

아름다운 등대가 우뚝 솟아있고, 바다낚시 포인트로도 유명하다.



차가운 밤의 물과 따뜻한 빛들은 냉정과 열정 사이를 오가며
그 빛들은 파도와 서로의 빛들에 의해 부서지고 파편화되어
마침 아침 일출과 함께 나에게 점점 다가온다.

셔터를 누를 때마다 늘 부족함을 느낀다.
끊임없이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얼마나 가슴 설레는 일인가.

글 사진_윤영중 한국사진작가협회 부산광역시지회 편집간사장

바늘, 혹은 물음표

갈치 한 상자가 왔다. 바닷길을 건너 하룻밤 만에 똑딱 도착을 했다. 잡은 즉시 급속 냉동시켰다는 큼지막한 갈치 스무 마리 정도가 은빛 싱싱함을 한껏 과시하고 있다. 얼음의 마법이 풀리면 금방이라도 비린 기를 흠뻑리며 물속을 활개 칠 것 같다. 매사 속전속결, 참 좋은 세상이다.

머리 허연 세월을 걸쳐도 미더운 구석이 없어 보이는지, 매장의 직원은 손질을 할 수 있겠느냐며 걱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럴수록 베테랑 주부 흥내를 내며 자신 만만을 과시했던 건 아마도 여행이라는 설렘이 현실의 무게를 희석했기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손질된 제품의 절반 가격이라니, 다분히 충동적이라 할지라도 지갑을 열지 않을 수 없었다.



12시의 마법이 풀려버린 신데렐라처럼, 막상 포장박스를 열고나니 할 줄 모르고 하기 싫어하는 성정의 나로 되돌아와 있다. 지느러미를 자르고 배를 갈라 내장을 끄집어내고 토막까지 내어야 하는 공정을 생각하자 한숨부터 나온다. 적잖은 비린내를 감수해야 하려니와, 칼 든 여자가 되어 부관참시의 무지막지한 작업에 손을 쓰는 일도 마뜩잖다. 손질된 것으로 조금만 살 걸 그랬다는 후회마저 든다.

3박 4일의 일정으로 집을 나서는 내게 남편의 주문이 살집 두툼한 갈치였다. 흔쾌히 그러마하며 며칠간의 부재에 대한 미안함을 농쳤다. 동으로, 서로, 제주를 바람처럼 떠돌다가 사흘째 되는 날 인연이 닿은 원주민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찾아간 곳에서 문제의 갈치를 해결할 수 있었다. 주소 몇 자로 택배를 보내놓고 가볍게 날아왔는데 귀가를 하자마자 배송 기사가 다녀갔다. 피곤했지만, 뒤란 수돗가에 쪼그리고 앉아 갈치를 개봉한다.

오래전 휴가 차 갔던 사랑도에서 갈치 낚시를 구경한 적이 있다. 일행들 속에서 초등학교생이었던 아들 녀석에게도 낚시대 하나가 돌아갔던가 보다. 그날, 유난히 검은 밤을 배경으로 강태공 코스프레를 했던 아들에게 눈먼 갈치 한 마리가 낚였다. 갈치라 부르기도 민망할 만치 가늘고 작았지만 아들에게는 생애 첫 낚시며, 예상치 못한 전적이었다. 조사의 감냥을 간파한 바다의 선물에 우리 모두는 환호했다.

치켜 올린 낚시대 끝에서 한 마리 생물체가 꿈틀거렸다. 어둠을 유영하는 듯, 새끼 갈치는 있는 대로 지느러미를 펼친 채 요동을 치고 있었다. 캄캄한 하늘에 빼곡하게 박힌 잔별들을 배경 삼은 갈치의 색은 은빛이라기보다는 형광빛에 가까웠다. 그 찬란한 몸짓은 먹어 입을 즐겁게 하겠다는 포식자로서의 기세등등을 이끌어내기보다는 한동안 낮을 부리게 할 만치 처절하게 아름다웠다. 그 아름다운 것을 낚아챈 아들이 대단해 보였다가도, 아들로 하여금 물속에 구미의 뒷을 던져 넣도록 부추겼던 내가 한없이 미안하기도 했다. 땀엔 저를 움짱달짝 못하도록 꿇고 있는 바늘의 정체와, 생전 처음 만나는 물 없는 세상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 것인가. 혼비백산으로 퍼덕이다가 결국 바다로 되돌아가기는 했지만, 낚시바늘에 대한 경각심만은 제대로 습득을 했으리라고 그날 밤의 해프닝을 갈무리했다.

제주 갈치 역시 낚시로 잡는단다. 직원은 가벼이 돌아서는 나를 향해 녀석이 삼킨 바늘을 잘 빼야 한다고 강다짐을 했다. 이 순간, 사연을 받듯 내 앞에 횡대로 키를 맞춘 갈치들은 하나 같이 바늘을 품고 있다는 말일 게다.

첫 갈치가 아가미에 박아둔 바늘은 손가락 두어 마디는 거뜬히 될 만치 큼지막했다. 저걸 어찌 삼켰나 싶지만 톱니 같은 이빨을 보면 녀석도 매초롬한 외양과 달리 우악스러운 성정을 가졌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저 날카로운 이빨을 있는 대로 드러낸다면 가히 위압적이겠다.

미늘의 고집불통을 다독이며 일일이 바늘을 뽑아내자니 생각보다 진전이 더뎠다. 한 번 삼키면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죽음의 미로에서 탈출하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을 쳤을 것인가. 그러는 동안 바늘은 더 깊숙이 살점을 파고들었을 테고. 시퍼렇게 날 선 칼을 겨누고 앉은 터이지만, 남모르는 사투의 시간을 더듬다 보니 손끝에 실리던 신명이 반감된다.

한 생명을 나포한 전공이 혁혁하기는 하나, 실상 바늘이 만들어내는 유려한 몸 선은 손톱만큼의 악의도 없어 보인다. 부드러운 곡선의 각이 연출하는 호의야말로 방심을 유도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단방을 노리는 예리한 바늘 끝과, 퇴로를 막아서는 미늘의 전법까지 알았다면 선부르게 입질을 하지 않았으련마는. 미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자, 물속에도 별반 없는가 보다.

마치 갈고리처럼, 바늘의 모양새는 단순해 보인다. 그러나 때와 장소와 어종에 따라 제각각 다른 바늘이 사용된다고 한다. 목적하는 어류의 입과 물의 저항까지 감안해 바늘의 크기와 각도, 날카로움까지 나름 정교한 공정을 거치기 때문이란다. 세월을 낚는다고 미화를 하지만, 진인사대천명, 피식자의 입에 최적화된 바늘을 꼼꼼히 준비한 다음 출조가 시작된다는 말이겠다. 거기까지는 포식자로서의 인간이 꾀하는 바다.

바늘을 돌려세우니 물음표가 된다. 바늘을 눈앞에 둔 자는 스스로를 향해 수없는 물음표를 던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겠다. 그러나 미끼는 늘 지나치게 달콤하고, 욕망의 끝은 참혹한 법이니. 조급하게 먹이를 탐하느라 물음표의 시간을 간과했던 과오들이 내 앞에 누워있는 것이 아닐까. 순조롭게 명을 내려놓을 틈마저 뚝박 박제되어 버린 갈치가 서늘한 어조로 나를 가르친다.

난들 어찌 미끼의 유혹에서 단호하지 못했던 적이 없었으랴. 눈썹 위의 세상을 욕망하고, 그것이 내 것이라 우기고 싶은 적도 많았다. 꿈수를 동원하거나 잔머리를 굴렸던 치졸함은 결국 자괴감이라는 처절한 응징을 감수해야만 했다. 그 흔적이 상처가 된다면 내가 오늘까지 견재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상처의 힘이었다. 어긋나고 빼격거렸던 삶의 단편들이 결국 미끼 속에 잠재된 물음표를 보지 못했던 탓이었음을 몇 마리 버린 것들을 해체하는 동안 자학자습하게 된다.

해방이라는 표현이 어울릴지는 모르겠으나, 갈치는 모두 바늘에서 해방이 되었다. 갈치는 이미



갈치가 아니므로, 더 눈앞의 이_利와 불_利不利를 저울질하는 일에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된다.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시키기 위해 억지 논리를 펼칠 필요도 없다. 수북하게 쌓인 바늘 무더기가 뜬금없이 나를 반성모드로 몰아간다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세상이 혼란스럽다. 권력이라는 달콤한 미끼에 입질을 했던 자들이 그 혼란의 대부분을 만들어내고 있다. 연일 붉은 글씨의 속보가 뜨고, 위험천만한 방법으로 세상을 도모하려던 자들이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폴리스라인에 선다. 끝내 당당한 이도 있고, 더러는 불순하거나 허황되거조차 했던 욕망을 반성하는 이들도 보인다. 그런들 이제 와서는 삼키지도 뱉어내지도 못하는 것이 그들을 꿰고 있는 바늘이니, 땅 위를 걷는 인간이나 물속을 헤엄치는 미물이나 다를 바가 없는 모양이다. 동그랗게 눈을 치뜬 물음표들을 돌아앉은 채 토막 난 갈치를 추스르지만 그 다지 입맛이 들지 않는 저녁이다.

클.문경의 수필가

발레 그 이상,

ESSENTIAL

부산아이디발레단 대표
이주호



- 현 부산아이디발레단 예술감독, 아이디발레스튜디오 대표
- 부산예술고등학교, 창원대학교 외래교수
- 전 국립발레단, 홍콩국립발레단, 에스토니아바네무이네국립발레단
- 제18회 한국을 빛낸 해외 무용스타 스페셜 갈라 초청 무용수
- 2021, 22 부산을 빛낸 발레스타와 함께하는 갈라 초청 무용수
- 2023 SS 파리패션위크 Rick Owens 모델
- 2023 SS 밀라노&피렌체 패션위크 Soulland 모델
- 2024 NYFW S/S 뉴욕패션위크 SS모아브(MMAM)오프닝 쇼 연출 및 모델
- 제2회 부산아이디발레단 에센셜 With K발레 페스티벌 총기획 및 안무

부산이 예술의 도시인가. 그것은 부산 예술인들의 탁월한 예술성을 논하는 것이 아니다. 예술가들이 자신의 것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조건들과 기회가 체계와 조직 아래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예술의 도시 부산을 만들기 위해 발레의 정수를 찾아서 최고의 무용수를 거냥하고 있는 부산아이디발레단 대표 이주호를 만났다.

이주호는 어느 날 부산에 혜성처럼 나타났다. 2011년 부산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예술종합학교(서울), 홍콩발레단, 에스토니아 국립발레단, 파리 패션위크, 밀라노, 뉴욕, 런던, 코펜하겐, 베를린 등을 거쳐 2022년 부산에 다시 정착했다. 모델을 꿈꾸며 운동을 좋아하던 키 큰 소년은 <제18회 한국을 빛내는 해외무용스타 스페셜 갈라>(2021)에 등장하며 부산 무용계를 이끌 리더로 자리했다.

스스로를 욕심 많은 사람이라 자칭하며 나열한 요즘의 일상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하다. 모교인 부산예고와 창원대학교에서 강의하며, 부산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해 최근 논문을 마무리 단계에 있다. 주중에 이들은 아이디발레스튜디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회원을 관리하며 작품 구상과 발레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 중이다. 2025년도 사업 계획에 한창이던 그는 무대 위의 화려한 무용수라기보다는 크리에이티브라는 수식어가 더 어울리는 또 다른 가능성을 펼쳐 보이고 있었다.

<에센셜>(안무 이주호)은 무대장치나 의상, 표정까지 배제하고 오로지 음악과 안무에만 집중한, '발레 본연의 것을 탐구'한 작품이다. 고전발레의 판타지를 넘어 선과 공간으로 발레의 본질에 다가선 컨템포러리 발레라 정의할 수 있다. 작품을 살펴보면, 무용수의 기량이 각자의 포지션에서 충분히 표현되며 그 다양성은 빛에 의해 포획된다. 극적이고 리드미컬한 움직임은 무대 위의 광활함을 잠식하고, 몸으로부터 발광하는 선은 기하학적인 형식으로 완성된다. 무대는 환영 같은 장면들의 연속으로 잭슨 폴록의 추상표현주의를 좋아한다는 그가 가진 안목의 발현이다. 극도의 추상으로 나아간 작품은 미니멀리즘의 단순화를 표방하며



〈에센셜〉

오로지 선(線)의 성질에 집중한다. 완벽한 선을 향한 종착지에는 한 명의 무용수가 존재한다. 웨인 맥그리거의 작품을 본 이후 컨템포러리 발레를 좋아하게 됐다는 그에게서 '사물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인 원자Atom에 영감을 얻어 인간의 몸과 움직임을 탐구하는' 혁신성과 예술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발레의 본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용수의 탄탄한 기본기이다. 무용수들의 신체로 표현되는 비언어적인 요소들은 수년간 다져온 개인의 감정과 인생의 서사로 응축된 것이기에 그 자체로 연출이 가능하다. 이 안무가는 무용수들의 철저한 통제가 있기에 관객은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 거기에는 발레에서 필수적이고 극히 중요한 본질, 스스로를 통제하고 희생한 고통과 절제, 노력과 반복에 의해 획득한 무용수의 피지컬과 기량이 있다. 그것을 혹자는 '우아하고 잔혹한 몸의 전쟁'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디지털 기술이 모든 것을 평평하게 만들어 버린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용수의 몸을 보면서 공간의 볼륨을 체화한다. 이 볼륨은 굉장히 감정적이다. '예술은 손으로 만든 작품이 아니라 예술가가 경험한 감정의 전달'이라 말한 톨스토이는 자신의 작품을 '삶의 파편'으로 만들었고, 발레는 감정의 총합으로 얻어진 결정체와 같은 움직임으로 완성된다.

"사실 몸은 쉽게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3개월 4개월 우연히 거울을 봤을 때 내 몸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 희열감과 성취감이 대단히 커요. 다이아몬드를 세공하는 것처럼 근육

을, 몸을 깎는 거예요." 절대 쉽지 않은 이 길을 건너고 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다. 발레의 기나긴 훈련의 시간은 완전무결한 무용수의 오라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제33회 부산무용제에서 우수상을 받은 아이디발레단의 〈에센셜〉을 관람한 관객은 "모든 무용수의 기량이 매우 돋보였다. 그만큼의 훈련과 관리를 완성해 낸 이주호 안무가의 프로페셔널함에 감탄한다"라는 말을 전했다. 무언가를 좇기 위해 한 걸음 내디디면 더 멀리 달아나는 빠른 세상에서 이주호는 출발선으로 다시 돌아갔다. 철저하게 통제하고 정형화된 움직임을 할 줄 알아야지 자유로운 움직임이 가능하며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을 강조한다. 본질에 다가서 발레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부산에서 가장 진취적이며 영향력 있는 안무가로 이주호를 주목해 본다.

글 인물사진_정혜주



순수한 열정의 피아니스트 김병기

온기가 남은 커피잔을 들고 마주했다. 청바지에 살구색 스웨터를 입고 수줍은 웃음을 지었다. 오후의 나른함을 털어내듯 마주 앉았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진실한 삶이 묻어난다. 툭툭 소리를 내며 장작이 불길에 타들어 가듯 말을 끌어내고 엮고 이어갔다. 김병기의 삶은 전부가 피아노다. 5살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로 처음 접한 피아노, 건반 하나하나 착하다착한 어린 감성이 부산과 후쿠오카 동경을 넘나든다. 피아니스트의 삶을 살지만, 인터뷰 장면은 매우 조심스럽고 소극적이다. 팸플릿 프로필은 3줄 길어야 5줄 이내로 기록한다. 이게 김병기의 속살이다. 노력하는 그의 삶, 한마디로 순수한 열정의 피아니스트다.

음악과 함께 한 어린시절 외할아버지가 6·25전쟁 때 부산으로 피난 오셨는데, 그때 집에 귀한 풍금이 있었던 게 기억난다. 외삼촌이랑 이모들은 기타를 치거나 하모니카를 불고, 어머니는 음악 듣는 것을 좋아했다. 목욕탕을 가면서 테이프 음악을 듣고 어머니가 직접 녹음하고 들려주는 클래식 음악도 들었다. 남포동 악기점에서 피아노를 사달라고 졸라 이모랑 어머니가 한 대 사주어 땅땅거리며 처음 접했다. 한 곡을 완성하면 100원씩 주는 어머니의 지혜로 한 곡씩 완성해 갔고, 방안에는 독일 지휘자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액자가 걸려있었고, 어린 마음에 나무젓가락으로 휘휘 휘두르면서 지휘자 꿈도 키웠다.

일본으로의 유학과 동경음악대학 진학 1982년쯤 전포동 피아노학원에 다니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무서웠고 학원에 가는 것이 싫었다. 음악은 즐겁게 하는 거지 왜 화를 내나 싶어서 무섭고 싫었지만, 항상 재밌게 하려고 했다. 부산예고



에 입학한 후 1학년 말 교육 환경이 좋다는 후쿠오카 제일고등학교에 아버지의 권유로 테스트 받고 입학하였다. 처음에는 원망스럽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으나 당시 예고는 한 반에 60명 정도인데 후쿠오카 제일고등학교는 25명 정도로 학생 수가 적었고, 교육 환경도 선진화되어 잘 적응했다. 동경음악대학은 당시 입시생이나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3주 캠프를 열었고, 그 기회에 동경음대 교수로부터 지도를 받을 수 있었다. 무척 엄했지만, 연주 모습이 너무 좋아서 배우고 싶어 동경음악대학으로 진학하게 되었다.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 곡이었는데 입학시험을 치른 날, 훈련된 감각과 초집중으로 완벽하게 연주하였다. 슈만의 판타지 두 번째 악장으로 어렵다는 마지막 부분이었다. 히로나카 타카시 선생님과 인연은 운명처럼 엮어졌다.

피아노가 전부인 참 스승과의 만남 헝가리 연주자들은 재미있게 연주하고 악기를 잘 다룬다. 그러나 IMF의 영향으로

헝가리 유학의 꿈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와 지인의 소개로 경성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였다. 당시 경성대학교 음악전공 교수진들은 공연의 기회를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곳에서 음악의 참 스승이며 가장 닳고 싶은 조현선 선생님을 만났다. 선생님은 연습 시간을 철저히 지키며 자기 관리를 잘하셨다. 수업 시에는 질문을 많이 했고, 질문하면 끝까지 답을 찾아서 도움을 주셨으며, 연주자의 의도와 생각대로 연주해야 한다고 늘 강조했다. 연주 방법과 음악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피아노가 삶의 전부였던 스승의 모습은 지금까지도 마음 깊이 새겨 나를 훈련하게 한다.

따뜻한 위로를 연주하는 피아니스트 음악적 영감은 감동적인 영화를 보면서 자연을 산책하면서 얻는다. 피아노는 언제 치고 싶냐고 물어오면, '연인과 사귀어라. 그리고 헤어질 때의 아픔을 경험하라.' 그리고 '피아노를 쳐라. 쇼팽이나 슈만을 치면 마음이 와 닿을 거다.' 그렇다고 연주자는 항상 분위기에 빠져서만 연주할 수 없다. 한 곡을 완벽할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이 피아노 연주자의 현실이다. 이게 숙명이다. 착한 아내도 그쯤 되면 방으로 돌아가고 만다. 오른손 왼손 번갈아 같은 곡을 치는 소리는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다. 연습에서는 곡을 끝까지 치는 경우가 거의 없다. 삼십 번 안 되면 삼백 번 삼천 번 치는 게 항상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다. 국내에서 독주회를 계획하고 있다.

좋은 연주자가 되려고 노력했다. 무대에 오르기 전 피아노를 완벽하게 점검하고 그날 연주곡의 주인공(작곡가)이 된 것처럼 철저히 몰입하려고 했다. 하나의 색깔보다 다양한 색깔, 한쪽 작곡가들로만 치중하지 않았다. 학생들 가르칠 때도 '강요는 하지 말자', '본인 생각으로 연주하게 하자', '학생 의견을 존중하자는' 암묵적 정체성을 강조하게 되었다. 독일 낭만주의를 좋아하고, 터치 자체가 묵직하고 느리면서, 차분하고 사색하는 느낌을 더 좋아한다. 가볍고 섬세하고 인

상주의 음악 같은 느낌은 늘 도전의 과제이다. 피아노 소리는 따뜻한 느낌이 나도록 연주하고 싶고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싶다. '베토벤 곡을 곧잘 연주하고 절제된 생활을 한다는 평을 듣고, 독주회에서 절제돼 있지만 자유로운 음악적 특징을 가진 독일 낭만주의 음악을 택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산 음악계의 현실 부산에도 대학생들이 활발하게 연주하면서 살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서울에서 개최되는 '그랜드페스티벌'에 참여해 부산의 음악을 알리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힘들고 어렵다. 또한 클래식보다 매체의 영향으로 실용음악이나 뮤지컬을 많이 선택한다. 지역에서 좋은 연주자들이 많이 활동한다면 부산이 음악의 중심지가 될 수 있다. 부산에도 이렇게 좋은 음악가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리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피아니스트라 불리는 것보다 피아노를 좋아하고 연주하는 사람으로 남고 싶다고 말하는 김병기는 부산의 음악 교육 현장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 부산에서 후학을 키워내며 음악으로 교감하고 있는 그는 현재 여러 단체와의 활동을 중흥하며 부산 음악의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따뜻한 음악을 들려주고 싶다는 그의 연주가 부산에 울려 퍼져 희망의 씨앗이 피어나길 바라본다.

글 인물사진 신용욱

- 동경음악대학 졸업
-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졸업, 박사수료
- 경성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 현) 부산음악협회 피아노분과위원장, MBC라디오 가정음악실 해설자

영원히 잊히지 않을

우남¹⁾ 佑男

김기남 화백

- 개인전 5회, 국전 3회 입선,
목우회 입·특선 3회
- 조화랑 3인 초대전,
중앙예술대 동문전 다수,
부산미술50년전(국제신문사 문화센터
개관기념 초대전),
창작미술 38회, 63~현재 밀알전 출품,
서울영토회 20회 출품,
02~07 부산미술대전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 역임,
우주일원상전(전주예술회관),
남부현대미술제,
창작미술가회 활동,
부산미술의 재조명전 등
- 현) 한국미술협회,
부산미술협회 원로작가회,
신사회, 밀알회, 동래미술회,
형맥회 고문



그림은 어떠한 계기로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황해도가 고향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아버지와 단둘이 월남(越南)을 하였습니다. 월남해서 보니 혼란기 시국에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저는 저대로 흩어지면서 이산가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청소년기를 지나는 저에게 서울은 매우 거칠고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공부는 해야겠다는 생각에 돈을 벌기 위해 신문 배달을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신문 배달 말고는 없었습니다. 수입이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굶어가며 돈을 모아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다녔습니다. 저는 이렇게 혼자서 힘들게 홀로서기를 하였습니다.

예전부터 세종대왕 혹은 이순신 장군 등 초상화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머릿속에 남아있던 위인들의 이미지를 그릴 때면 주변에서 “그림을 참 멋있게 잘 그린다”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한날은 우연히 정릉에 있는 계곡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서라벌고교의故 서임병 선생님께서 학생들과 함께 야외스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서라벌고교는 그림으로 유명했었습니다. 선생님께 “제가 그림을 하고 싶은데, 상황이 아주 힘들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이 고등학교에 가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즉시 도움을 주셔서 야간 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들었던 칭찬을 바탕으로 당시 늦은 나이에 성북구에 있던 서라벌고등학교에 입학하였고, 미술부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으로 미술학도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작품을 통해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혹은 작품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요?

서라벌 예술대학 회화과로 진학하여故 장의석 박영선 황유엽 선생님께 지도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에게 그림을 사사(師事)하였지만 저는 제 나름의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 자연 그 자체를 단순 조형으로 작업



깊음의 향기_유화, 100호, 1970년대

한 추상작품²⁾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다가 1986~1993년에는 유화의 덧칠과 마름의 기다림으로 승화된 작품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윤희의 첻바퀴 속에 작가와 세상이 겹치며 살아가는 인간의 생체, 몸 자체를 작품에 담았습니다.³⁾ 작품의 제목처럼 「동란의 삶」이란 힘겹게 살아온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연대별로 나열하여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75년대는 ‘깊음의 향기’라고 하여 작가가 자유롭게 묘사하며 그림을 그리는 것을 말하고, 80년대는 ‘동란의 꿈’이라고 하여 어려운 시기에 겪었던 것을 되살리면서 그림을 그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90년대는 ‘평온의 도래’, ‘평심도’입니다. 결혼하게 되면서 말 그대로 삶이 평온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2000년대에는 ‘사회로부터의 혼조’, 2000년 초는 ‘삶의 총정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제 삶을 일련의



환상의 뉴_유화, 10호, 1980~90년대

과정으로 작품에 투영하였습니다. 이렇게 작품은 시대별로 변화를 가져옵니다.

국전에 입선하셨던데, 이에 대한 에피소드가 궁금합니다.

제가 장의석 선생님께 많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그 덕에 국전에 입선하게 된 것 같습니다. 대학 1학년 때 국전을 앞두고 장의석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해서는 출품할 수 없다”고 하시며 저의 정물화와 풍경화를 모두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림을 배워

야겠다고 마음먹었던 장소인 정릉계곡을 찾아가 그 계곡을 그렸습니다. 출품기한이 10일밖에 남지 않은 터라 10일 만에 온 힘을 다해 「계곡」이라는 작품을 완성하여 선생님께 가져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 작품을 흡족하게 보시며 출품을 허락하셨고 마침내 국전에 입선하게 되었습니다. 출품한 「계곡」은 입선과 동시에 자유중국(현. 대만) 대사관에 10만 원⁴⁾에 팔렸습니다. 이렇게 작품이 팔리게 되어서 홀로서기라는 어려움 속에서 조금은 힘을 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병국 대학처장님께서 제 작품을 많이 매입해 주셨습니다. 저렴하게 매입해 주는 조건으로 처장님의 어린 딸에게 그림을 가르칠 기회가 생겼고, 그림을 가르칠 수 있는 장소 또한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다른 많은 사람들이 제게 그림을 배우러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유치원을 42년 동안 운영하셨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미술교육은 1973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대저중학교 5년, 동주여자중학교 5년, 이렇게 총 10년 동안 교직생활을 하였습니다. 교직생활 중 최병국 대학처장님이 딸의 그림을 지도해달라고 하면서 교육장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바람에 수강생이 하나둘씩 늘어났고 그렇게 늘어나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아동교육에 대한 꿈이 생겨났습니다. 제대 후에 영도에서 미술 연구소를 하다가 1974년에 관인 13호⁵⁾로 인가를 얻어서 ‘우남 미술학원’을 설립하여 십여 년간 그림을 가르쳤습니다. 이후 영선초등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유치원으로 인가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미술학원도 하면서 유치원 운영도 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 운영과 교직생활을 이중으로 겸할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교직생활을 그만두고 원장으로서 유치원을 계속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제가 운영하는 유치원을 졸업했습니다.

서울에서 공부하시다가 부산으로 내려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7살 때 제2보충역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군대를 다녀오지 않으면 취직이 안 되기 때문에 1966년에 제1보충역으로 지원하여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배치받은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그렇게 광안리 측지부대(지도 만드는 부대) 정보과로 발령받았습니다. 1968년 상병이 되는 해에 월남전에 지원하였지만, 정보 계통의 특수 보직이라서 지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행정과장의 도움을 받아 월남전에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베트남 나트랑에 있는 '29연대 백마부대 정보과'로 발령을 받아 남은 군 생활을 마쳤습니다. 전역하여 돌아오면서 부산과 인연이 되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에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부산보훈병원에 작품을 기증하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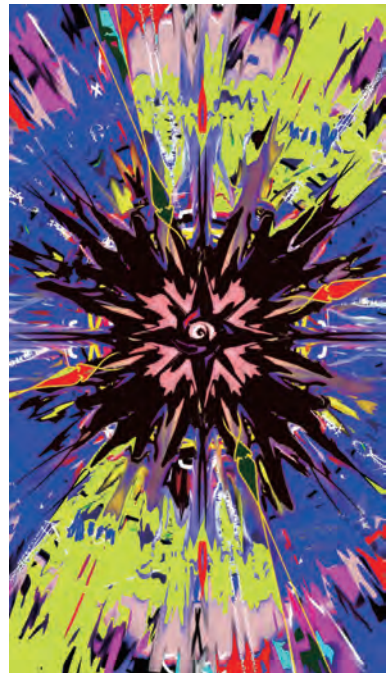
저는 국가유공자로서 부산보훈병원에 무료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감사한 마음으로 병원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림을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정서 함양이라는 목적 아래 작품 기증에 대한 생각을 늘 하고 있었습니다. 소화기내과에서 치료를 받던 중 김학준 실장이 자신의 음악회에 저를 초대해 주었습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부산미술협회 창립 멤버로서 참여한 원로전시회에 김학준 실장과 이정주 병원장을 초대하였습니다. 전시장에서 제 그림을 보면서 “작품은 얼마에 매입합니까?”라는 물음에 “매입보다는 작품을 기증하고 싶습니다. 환우들과 같이 정서 함양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라는 말에 부산보훈병원 운영위원회와 회의를 거쳐서 작품 60점을 기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2024년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기증식과 함께 ‘우남 김기남 회고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는 부산보훈병원의 신관과 구관을 연결하는 다리

를 ‘우남교’라고 하여 우남 김기남 브릿지라고 명명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호사유피인사유명(虎死留皮人死留名)⁶⁾’이란 말처럼 아주 큰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에필로그]

김기남의 작품은 ‘우남’이라는 호처럼 기증이라는 또 다른 가치를 생산하며, 작품으로써 새로운 생명력을 가지게 되었다. 비록 그의 젊은 시절은 홀로서기라는 역경이 있었지만, 작품에 대한 열정으로 승화되었기에 많은 이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불리게 될 ‘우남교’처럼 영원히 잊히지 않을 그의 호와 이름을 다시금 떠올려본다.

글_인물사진_권오혁 아티멘션 대표



환상의 마음을 그리다
_컴퓨터그래픽,
25호, 2022년

- 1 佑:돛다(우), 男:사내(남)
- 2 1975년도 작품 참조
- 3 1986~1993년 작품 참조
- 4 당시 판자촌 집을 살 수 있는 가치의 금액
- 5 부산 시내의 13번째 학원으로 인가를 받음
- 6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겨울 나무

김 달 현

언덕에 홀로 서 있는 겨울나무는
 앙상한 가지만 안고 북풍 환설도
 잘 감내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항상 푸르름을 자랑하던 시절
 지나온 동물들 잠시 쉬터로
 새들이 지저귀는 안방으로
 농부들 잘간 휴식공간으로
 서로 주고받던 이야기를
 오래 기억 하리라.

지나갈 신비롭고 풍요로운 새날 대신
 지후은 삭막한 수목화의 배경으로
 외롭고 쓸쓸해도 새싹 돌아 나는
 그날까지 차디찬 한파를 참고
 묵묵히 서 있는 모습은
 늠름하고 장하디

작가노트 | 앙상한 가지로 언덕에 홀로 묵묵히 서 있는 겨울나무는 언제 보아도 늠름하고 장하다.

글_김달현 부산문협 이사, 남구문협 고문, 한국문협 회원

RE: VIEW

미술 백남준, 백남준, 그리고 백남준 _ 이상수

영화 (사랑해!) 테크노 _ 김민우

음악 예술의 쓸모
피아노 앙상블 무미건조舞美鍵趙 _ 유영욱

미술 부산예술인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청년 예술인 후원을 위한 기획전시 'fun_인연' _ 구본호

백남준, 백남준, 그리고 백남준

Nam June Paik, Nam June Paik, and Nam June Paik

글 이상수
사진_부산현대미술관 제공



백남준_108번니, 1998,
20인치와 29인치 CRT 모니터 108대, 컬러, 유성, 50분,
가변크기.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소장.

작가의 이름을 세 번씩 써서 전시의 제목을 만들고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그런데 이 전시를 말로 하면 그냥 ‘백남준 전시’이다. “백남준, 백남준 그리고 백남준 전시 봤나?” 하고 물어보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있다면 평소 미술 전시에 대한 관심이나 경험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부산현대미술관이 2024년의 대미를 장식하는 ‘특급 기획’ 전시의 제목이다.¹⁾ 그런데 특이한 점은 전시의 제목 글자들의 배치가 일상적 모습인 횡으로 늘어선 것이 아니다. 글자가 박혀있는 여백을 보면 하나의 도형을 만들려고 하는



백남준_손과 얼굴, 1961, 비디오, 흑백, 무성, 1분 42초

듯 단어 위에 단어를 올리고 있는데 그 옆의 영문 단어들도 이 형상의 의미를 보완해 주고 있다. 여기서 '보완'이라 한 것은 이 한글의 단어들이 백남준 작품이 설치된 모양을 레이아웃^{Layout}으로 잡고 있는 모습을 연상시켜 주기 때문이다. 즉, 백남준의 비디오 작품이 상영되고 있는 육면체 사각 구형^{舊型} 앵크 텔레비전 세트들이 쌓여 설치되어 있는 형상을 연상시켜 준다는 의미이다. 이 전시 기획자의 의도일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전시 제목의 디스플레이와 레이아웃은 꽤 효과적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미술관의 2층 로비에 전자회로를 연상케 하는 전시 제목이 바닥 위에 크게 놓여 펼쳐지고 모서리 쪽 다소 좁은 듯 통로로 이끌리어 들어가면 맨 첫 번째 그의 싱글 채널 비디오 작품을 만난다. 1961년 작 퍼포먼스 비디오 「손과 얼굴」이다. 29세의 청년 백남준이 자신을 예술 작품의 매체^(소재)로 다루며 자아를 인식하고 만들었음을 것이다. 흑백 화면 속의 그는 어려 보이고, 젊고,²⁾ 그리고 고독하고, 신기해하고, 사유하고, 심지어 잘 생겨 보이는 부잣집 청년의 모습으로 첫 대면을 시작한다. 시종일관 눈을 감거나 떨어뜨리면서 관람자와 눈을 맞추지 않는다. 이 손짓과 얼굴을 보면서 앞서 언급한 감정들을 충분히 느끼고 있다면 남은 전시의 휘황찬란함은 더 이상 필요치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나는 미술 전람회에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바라지 않는 자세로 작품을 보려 한다. 또다시 만들어진 입구로 이어진 100평 정도의 넓은 공간 전체가 붉게 칠해져 있는 곳에서부터 초기작품들과 그에 관한 기록들 및 자료들이 함께 펼쳐지면서 전시는 시작되고 있다.

백남준은 불과 이십여 년 전인 20세기까지 대한민국 혹은 KOREA를 전 세계에 가장 널리 알린 한국인이다. 이는 1984년 1월 1일 세계를³⁾ 상대로 그의 작품이 위성으로 동시 생중계된 것에서 연유한다. 전쟁이나 테러 혹은 블록버스터

영화가 아니라 그 어렵다는 현대미술을 티브이를 통해 보여준 것이다. 화면 속 유럽과 미국의 참가자들은 한국 및 세계 곳곳의 갖가지 상황 등을 배경으로 실시간 의사를 소통하는 모습을 담았다. 요즘이야 전 세계 동시 시청이나 화상 회의가 어렵지 않지만, 당시로서는 엄청난 사건이었다.⁴⁾ 여러 가지 면에서 소통의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문명사적 대예언을 비디오 아트는 '혁명적으로 새로운' 형식으로 보여주었다. 그런 차원에서 나는 백남준을 대한민국 홍보의 제일 주자로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글자, 색동



백남준_TV 부처, 1974(2002)
석불좌상1기, CRT모니터1대, 폐쇄회로 카메라 1대, 가변크기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백남준 에스테이트 Nam June Paik Estate

저고리, 한국의 농촌 풍경들과 춤도 추고 노는 사람들이 티브이 화면으로 나오고 있었으니까.⁵⁾

1998년 1월경 나는 백남준과 일대일로 만난 적이 있다. 얼굴 대면이 아니라 목소리로 만났다. 미국에 있던 그와의 전화 통화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나는 나의 소개와 인사를 했고 선생님의 작품을 구입하려고 한다고 했으며, 앞으로 관리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다. 1996년 4월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발음은 많이 썼고 혀는 갈라지고 풀어져 있었다. “겐찬아, 훌리 살루이⁶⁾ 알아? 휠리 살라론에다...!!” 나는 또 이렇게 물었다. “고장 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아 그난 갈아끼든 대 대 겐찬아. 훌리 살리에 이야기 흥? 다아 하나아스... 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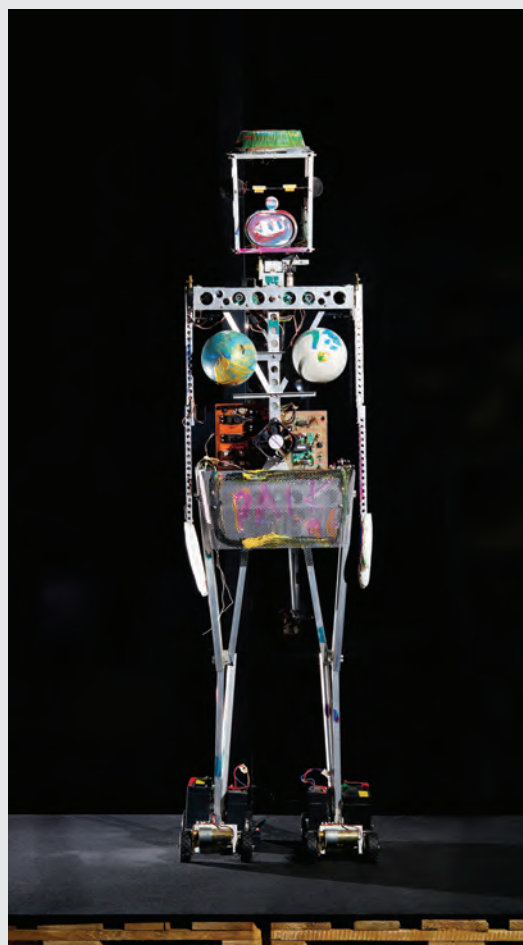


백남준_갤러버, 2001, CRT TV 모니터 11대, 진공관 TV 케이스 11대, 진공관 라디오 케이스 1대, 릴리푸티언 로봇 18개(LCD 모니터 18개), 나무 사다리 3개, 비디오 분배기 4대, 4-채널 비디오, 컬러, 무성, DVD, 59×432×371cm

아라서...” 그리고 부산시립미술관의 공식 첫 구입 작품인 「덕수궁과「김유신」「소통, 운송」이란 대형 작품 세 점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 이후로 나는 특히 「덕수궁」의 작동과 관리에 대해 많은 시간을 들였고 2004년 「백남준 작품의 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⁷⁾

백남준의 비디오 작품들은 이른바 ‘Media Installation’ 또는 ‘Technology based Installation’으로 ‘미디어 설치’ 혹은 ‘기술 기반의 설치미술 작품’으로 일컬어진다. 흔히들 ‘비디오 아트’라고 하면 싱글 채널 비디오⁸⁾로 상영되는 동영상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비디오 아트의 개척자인 백남준의 작품들은 동영상 작품이 상영되는 티브이 수상기 외에 조각과 설치의 요소가 가미된 형태의 작품으로 이른바 ‘비디오 설치 작업’으로 불린다. 물론 여기서 ‘조각’이란 나무나 돌을 쪼거나 깎아서 만들거나 흙을 뭉쳐 형상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이른바 다른 곳에서 만들어진 공산품이나 공예품을 사서 작위적으로 이어 붙인 형태로 레디메이드(Readymade) 조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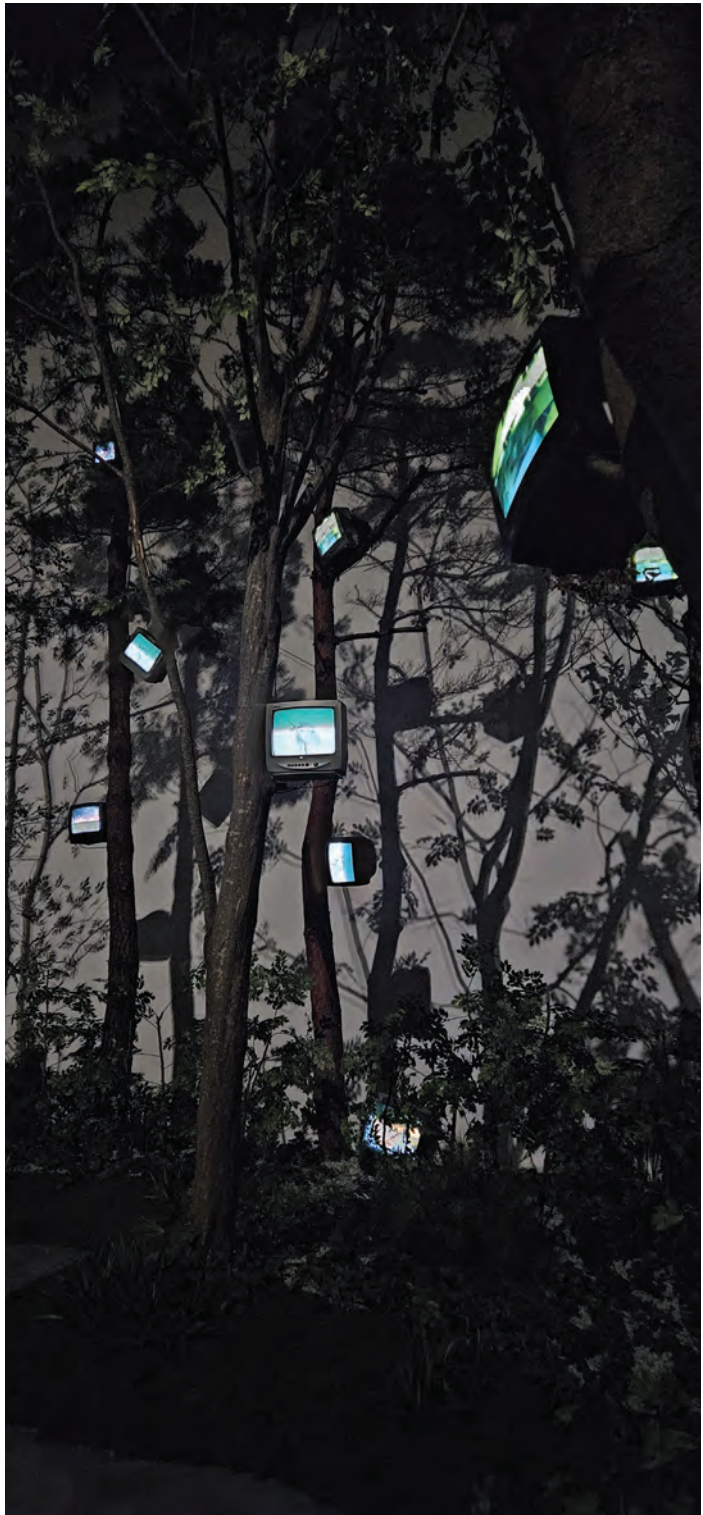
전시장의 설치 공간을 별도로 독립시켜 전시된 ‘돌부처가 앉아서 사지가 나오는 티브이를 보는 장면’들이 4점이나 5점이 놓여 있는 곳에 들어왔다. 그 유명한 「TV 부처」이다. 인간과 종교, 자연과 기술에 대한 가슴 뛰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⁹⁾ 딱딱한 돌



백남준_로봇 K-456, 1964(1996), PCB, 서보모터, 센서, 스피커, 앰프, 배터리, 원격 조종기, 팬, 철 구조물, 185×70×55cm

위에 견고하게 새겨진 감긴 듯 만 듯한 눈을 가진 돌부처의 얼굴 전체가 갑자기 피가 돌고 입을 벌려 말할 것 같은 마음속 깊은 울림을 느낀다. 이 지혜의 화신이 바보상자를 보는가? 달을 보는 것인가? 내가 보는 것은 무엇이고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인간 생명의 근원적 호기심이 몽글몽글 피어오른다. 과연 백남준 말고 누가 기술과 인간 간의 만남을 이만큼 철학적 성찰과 감성적 울림으로 이끌 수 있는가? 미켈란젤로는 차가운 돌 속에 갇혀있는 생명을 살려 끄집어낸다고 했지만, 백남준은 그렇게 끄집어내어진 조각을 보다 더 직접적이고 직관적이고 감성적으로 생명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백남준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예술가 중 한 사람이고 '미디어 아트'의 개척자다. 그런데 그게 일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왜 그가 이런 추앙을 받고 있는지 잘 모른다. 예술은 남의 일이고 '미디어 아트'라는 말 자체를 모르기 때문이다. 다빈치의 모나리자나 마크 로드코 Mark Rothko 처럼 아름답거나 신비롭거나 영적靈的으로 느껴지지 않는다.¹⁰⁾ 그의 예술적 행위와 남겨진 작품들은 여전히 일반 관객이 보기에 쉽지 않다. 미술품으로 보고 즐기고 공감하기 어렵고 감상하기가 불편하다는 말이다. 골동품도 아니고 신기술도 아니다. 한 마디로 어려운 현대미술 중 하나일 뿐이다. 미술에 대한 시쳇말로 해프닝과 행위예술, 텔레비전과 방송 장비를 다루며 인공위성까지 자기 작품의 도구로 끌어들이는(썩먹는) 실험과 도전 정신,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규모로 십 미터가 넘는 작품, 대규모 비디오 설치에 레이저 기술



까지 접목하였다. 이처럼 다양한 전자기술을 이용해 실험적이고 창의적으로 작업했다. “예술가의 역할은 미래를 사유하는 것이다”라고 하며 평생 기술과 예술이 어떻게 만나는가에 대한 방법을 연구하였다. 나아가 과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삶에서 어떤 식으로 사유가 되고 있는가에 대한 무한한 성찰을 하도록 이끌고 권유하였다. 전시는 다시 백남준 스스로가 자신의 예술을 설명하는 인터뷰 형식의 비디오를 비롯하여 「존 케이지에게 바침」(1973)부터 「호랑이는 살아있다」(1999)까지 백남준의 예술세계를 관통하는 내용의 비디오 상영실도 있다. 2층과 1층이 연결되는 특별한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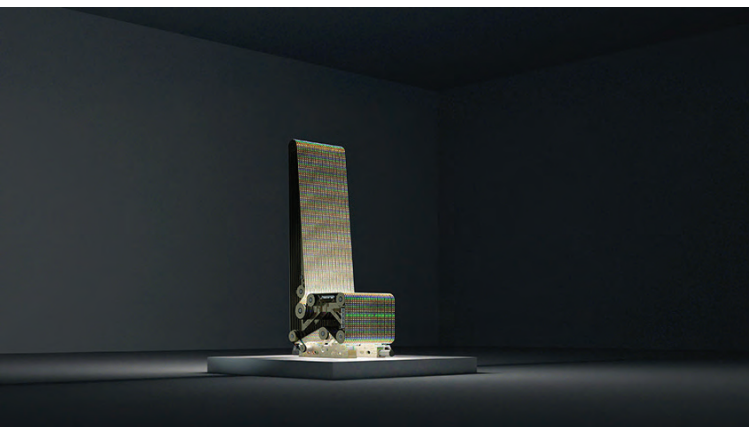
에서는 대규모 백남준 설치 작품의 백미인 8미터 높이의 나무가 숲을 이루고 나뭇가지에는 모니터들이 정령처럼 매달린 「케이지의 숲-숲의 계시」가 있다. 전시 마지막에는 2000년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백남준이 마지막으로 전시했던 레이저 작품 「삼원소」가 있다. 지금까지 만나 본 것 중에서 이 작품의 설치가 최고였다고 생각한다. 공간의 밝기와 천정의 높이가 잘 어우러져 광선속을 탐험하기에 그저 그만으로 좋았다. 이어지는 밝고 캄캄한 108개의 TV 모니터에는 눈 깜짝할 순간에 만나는 「108번뇌」가 마구마구 번쩍이고 있다.¹¹⁾ 인제 그만 나가라는 화살표를 등지고 선 나에게.

- 1, 2층 전관에 걸친 대규모 전시 “세계적 거장 백남준 전 생애 걸친 작품 부산 상륙(KNN), 작가 사후 국내 최대 규모 회고전(아트 조션), 백남준의 흠어진 작품을 부산서 불렀다.(동아일보), 부산 을숙도에 가면 백남준의 작업 연대를 한눈에(한겨레 신문)”
- 2 필자의 나이에 맞추다 보니 젊고 어려 보인다는 표현을 끌어다 썼을 뿐이다. 10대나 20대의 사진이면 ‘아버지’나 ‘아저씨’로 보일 것이고, 살아있다면 그는 현재 92세의 노인이며 전설적 천재이지 않은가? 이런 인물에 대한 환상적 인격체로서의 기억은 그를 옛된 젊은이로 연상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 3 아프리카나 남북극에서도 시청되었다는 증거나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뉴욕, 샌프란시스코와 파리 등 서울을 매개로 연결된 유라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은 ‘전 세계’를 대표한다고 본다. 1982년 포클랜드 사태로 전 세계 동시 위성중계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선을 보인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의도적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특정한 개념과 주제로 모으는 것은 인류역사상 최초였다. 당시의 용어로 이 상황을 “삼원 일체 위성 동시 생방송”이라 하였지만, 이제는 “실시간”이라는 간단한 말로 통용된다. 북미 동부 표준시 낮 12시에 방영되어 북미 350만, 프랑스 150만, 일본 330만, 멕시코 220만, 브라질 330만이 동시 시청했다. 어디서 갑자기 한국의 예술적 천재가 나왔다는 자랑 때문이었는지 새벽 두 시에 방영된 한국은 680만 명이 시청했다고 한다. (2024.12.18. 윌트 GPT/백남준:달은 가장 오래된 TV)2023, documentary 1시간 49분, NETFLIX)
- 4 최근 한국의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광경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실시간 중계되었고 수많은 관심과 찬사를 받았다고 한다. 민주주의의 실천이라는 정치적 이슈를 문화 행사적 성격으로 바꾸어버렸다는 상황을故 백남준이 보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해본다.
- 5 한국전쟁이 아무리 유명하다 해도 동아시아 변방, 작은 후진국, 못사는 나라의 하층은 일로 여겨질 만큼 한국의 존재 자체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의 시절이었다.
- 6 New York, Holly Solomon 갤러리를 말한 것으로 추정된다. 나는 홀리 솔로몬에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수리와 관리는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갈아 끼든 대”가 그냥 고치면 된다는 그의 대답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는 소통의 방식과 내용 그리고 이러한 상황의 인식이 중요하지, 형식은 덜 중요하다는 것으로 진정한 아방가르드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7 경기문화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움 및 워크숍, ‘백남준, 백남준 아트센터, 그리고 미디어 아트’ 404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백남준 5차 워크숍, 미디어 아트 창작물의 보존 방법 「공공미술관의 백남준 작품 보존관리 실태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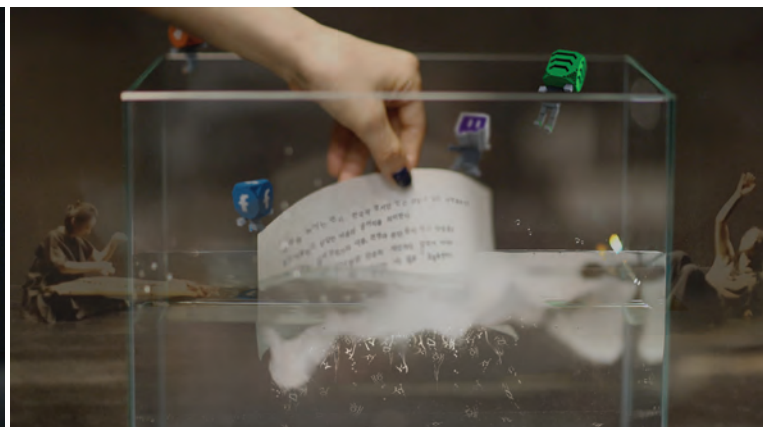
- 8 ‘싱글 채널 비디오’란 쉽게 말해 하나의 영상 카메라로 일관성 있는 주제나 장면을 기록해서(찍어서) 보여주는 것을 말한다. 만약, 한 화면 안에서 두 개 이상씩으로 화면이 나누어져 다른 주제로 상영이 되고 있다면 두 개 이상을 따로 찍은 것이다. 또 하나의 주제이지만 두 개 이상의 카메라로 기록해서 하나로 편집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다채널 비디오’라 한다.
- 9 정확히 말하면 인도의 시바 신도 있었고 일본과 동남아의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불상들도 있었다. 1974년 7월 20일 백남준은 아내 구보타의 생일날 통장 잔고를 몽땅 털어 불상佛像을 사 온다. 고대와 현대, 인공과 기술, 물질과 정신,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현장을 현실적으로 재현하여 큰 반향이 있었다. 이때부터 작품이 팔리고 생활고에서 점점 벗어날 수 있게 된다. 42세 때 이 정도이면 작가로서 빠른 나이이다. 그렇다고 금세 부자가 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작품에 쓸 재료비도 모자랐다.
- 10 백남준의 모든 작품이 다 그러하다는 말은 아니다. “영적으로 느낀다”는 표현은 직관적 감성을 빨리 느끼기 어렵다는 순간적 상황을 말하는 것이지 백남준의 작품이 영적이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 11 부산시립미술관의 「덕수궁」은 70개의 모니터에서 20분간 약 10 만번의 조합횟수에 따른 화면의 바뀜이 있다. 필자는 전자통신 기술자와 더불어 1998년부터 2007년까지 백남준작품 작품 「덕수궁」을 분석 연구하여 멀티채널 비디오의 화면 투사방식을 알아내어 국제학술세미나에 발표하였다. 각주 5)참조.



백남준 삼원소, 1999, 레이저 1개, 나무 틀, 거울, 반투명 플렉시글라스, 광학계, 프리즘2개, 모터 2개, 모터 전원공급장치, 연무기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백남준 에스테이트 Nam June Paik Estate



목진요_왕좌, 2024, 부산현대미술관 지원 제작



서소팀_프로젝트 해심서解心書_전하지 못했던 말들, 2024, 부산현대미술관 지원 제작

‘2024 부산모카 플랫폼_미안해요 데이브 유감이지만 난 그럴 수 없어요’는 AI 디지털 기술(이하 기술)이 인간에게 하는 말이다. 이 놀라운 AI는 미안하다는 감정을 학습하고 나와 타인을 구별하고 그럴 수 없다며 의사 표현한다. 기술은 실체가 없기에 ‘인간화’되어 가는데, 마침내 시각화된 기술은 불쾌한 골짜기에 이른다. 우리가 앞으로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기술이 인간을 지배할 수 있을지 없었지, 그 끝을 아무도 모른다는 점이 인간에게 위기감과 공포심을 안긴다. 융합, 합의, 대립 같은 단어를 빌어 둘 사이 상호작용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데 기술을 예술적으로 말할 때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 기술은 인간 생활을 위한 수단이지만 예술은 그렇지 않다.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예술이 오랫동안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인간의 서사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기술의 주체 즉, 예술 작품의 제작자가 인간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이야기를 배제한 기술로서의 기술은 살아남기 힘들다. 예술 작품이 생존하기 위한 조건으로 물리적 보존, 미술사적으로 의미 있는 사진 등이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감상자인 인간의 마음에 와닿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관람자는 기술자가 아니며 인간의 감수성이야말로 기술과 차별되는 지점에 있기 때문이다. 보는 이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기술로 인간과의 관계를 고민하는 시점에 만들어진 작품들이기에 제작하는 일만큼 감상하는 일이 까다로울 만하다. 전시장 여기저기 흩어진 작품들을 휘저어 가며 보는 것은 이런저런 개념들의 합의점을 찾기에는 적당했다. 물론 이 전시 기획자의 의도는 아니었으리라는 그 상상 끝에, 서소팀의 「해심서_전하지 못했던 말들」, 이승현의 「디지털 테라리움」, 패트릭 트레셋의 「휴먼 스테디 # 1」이 있고 언제나 놀라운 감동을 주었던 하지만 이번에는 다소 갑갑한 빌 비올라의 인터랙티브 작품도 있다.

이상수(1959-) 전 부산시립미술관 학예연구관, 전시기획, 소장품관리 및 보존, 미술행정 등 미술관 전반의 일을 하였다. 재임 중 이탈리아와 로마에서 미술작품의 보존에 관한 콘서베이터 자격을 받았고 퇴임 후 조지타운대학 연구교수와 미국문화재미술관에서 일하였다.

(사랑해!) 테크노

글_김민우 영화평론가

지난 11월 25일, 제26회 부산독립영화제가 막을 내렸다. 대상의 영예는 손희완 감독의 <테크노 사랑해!>에게 돌아갔다. 제목 그대로 테크노에 관한 다큐멘터리 영화인 <테크노 사랑해!>에 대한 관심은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출발했다. 물론 대상작이기도 했지만, 평소 EDM 음악을 선호하지 않고 음악에 몸이 들썩이지 않는 나 같은 사람에겐 테크노가 어떤 매력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는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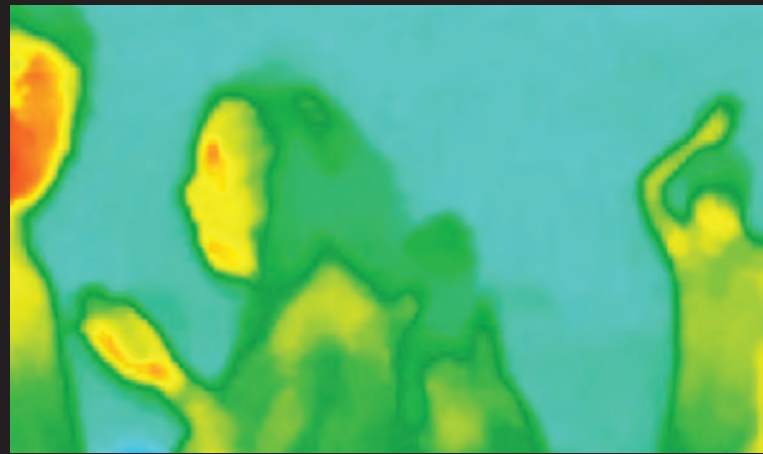
무언가에 열광적으로 빠져든다는 느낌은 무엇일까? 물론 저마다의 포인트가 있겠지만 <테크노 사랑해!>를 본다면 한 번쯤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 안의 인물들이 말하는 테크노와 테크노를 향유하는 사람들은 모두 열광적으로 빠져 있고 몰입하고 있으니까. 이 영화를 만든 감독도 그런 것 같다. 그는 이미 2022년도에 부산의 테크노 클럽인 '아웃풋'에 관한 단편 <아웃풋>을 만들어 테크노와 그 커뮤니티의 현장을 담아낸 적 있다. 이번 <테크노 사랑해!>는 테크노 장르 자체로 확장해 나가면서 테크노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테크노와 감독 자신이 체화하고 있는 테크노에 대한 이미지가 교차 편집되며 테크노를 체험시키고자 하는 것만 같다. 하지만 영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테크노만을 향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아니, 정확히는 테크노의 궁극적인 목적, '사랑'을 구현하려고 하는 것만 같다.

그런 측면에서 영화의 제목부터 들여다봐야 한다. 뜬금없이 부끄러운 얘기를 하자면, 얼마간 나는 제목의 괄호 안의 단어와 괄호 밖의 단어를 반대로 외우고 있었다. 아니 지금도 가끔씩 헷갈린다. 영화를 보고 난 뒤 더욱 그럴 것이다. 좀 더 뻔뻔하게 말하자면 <테크노 사랑해!>는 순서가 뒤엎어져도 상관없는 것만 같다. 두 단어의 순서를 바꿔도 성립하는 문장일 뿐만 아니라 영화에 대한 제목으로도 둘 다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목의 형식은 <테크노 사랑해!>가 불러일으키는 효과의 본질이자 영화의 인터뷰 참여자들이 말하는 테크노의 본질과도 맞닿아 있다. 애정의 주체와 객체가 흐려진 경계, 서로가 서로를 수식할 수 있는 관계. 거기에 더해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괄호의 존재다. 괄호는 존재의 확장성을 시사한다. 영화는 물론 테크노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이 주

를 이루지만, 영화는 '사랑해!' 앞의 괄호는 무엇을 집어넣어도 될 수 있다고 넌지시 지시한다. 이를 테면 누구든 자신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찾았을 때 희열이나 각자의 결핍에 대한 회복 탄력성을 위한 문화의 필요성 등의 말은 각자의 위치에서 '테크노'로 치환될 수 있는 수많은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영화가 춤, 굿음악 등 테크노가 뻗을 수 있는 연결점을 드러내는 것도 여기에 있다. <<테크노 사랑해!>>가 결코 테크노에 대한 예찬만으로 끝나는 영화가 아닌 이유다.

내친김에 <<테크노 사랑해!>>가 말하는 테크노의 본질에 더 다가가 보자. 테크노의 무한 반복 속에서 우리는 반복적인 몰입이 될 수 있으며, 그 순간 이곳에 함께 테크노를 들으면서 춤추는 사람들 한 사람이 된다. 말 그대로 물아일체의 순간에는 너와 나의 경계가 사라지고 그곳에는 정신과 영혼 간의 연대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사랑의 속성이기도 하다. 당신이 테크노를 두고 어떤 감정을 두고 있든 우리는 테크노로 하나 될 수 있는 것. 그건 다시 말해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던 사랑이라는 감정으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렇게 테크노는 다시금 무엇이든 될 수 있게 되는 존재가 된다. <<테크노 사랑해!>> 역시 단어의 어떤 배열로 지칭해도 상관없는 영화로 거듭나게 된다. 그러니 이 글의 제목 역시 실수가 아니다.

그런 가운데 테크노의 세계를 체험하게 만드는 듯한 감각적인 장면들은 영화를 더욱 흥미롭고 풍부하게 만든다. 마치 그 세계를 접속하는 장치인 것 같은 선을 따라 우리는 테크노라는 세계를 유영하게 된다. 그것은 물에 풍덩 빠지는 듯한 느낌이기도 하고, 자신을 탈피하게 만들기도 하며, 만물과 감응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주기도 한다. 이렇듯 <<테크노 사랑해!>>는 테크노에 대한 '증언'과 영화가 할 수 있는 감각만으로 테크노의 본질에 가닿고자 한다. 어쩌면 그것은 영화라는 매체로써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모든 걸 다 떠나서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건, <<테크노 사랑해!>>를 보고 나면 테크노 클럽에 가보고 싶어진다는 것이다.



예술의 쓸모

피아노 앙상블 무미건조 舞美鍵趙

클_유영욱 피아니스트

무미건조 舞美鍵趙는 '건반으로 표현하는 아름다운 춤곡'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자칫 무미건조할 수 있는 현대인의 삶이 메마르지 않도록 무미건조만의 예술적 감성을 추구한다. 무미건조는 2016년 2월 부산 창단 연주를 시작으로 국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클래식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테크닉으로 관객에게 새로운 감동을 선사하고 탱고와 재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프로그램으로 피아노의 매력을 선보인다.

'굿바이 송년' 프로그램은 재미와 의미 그리고 임팩트가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과도 같은 공연으로 기획되었다. 먼저 대부분의 관객이 연상하는 한 대의 피아노에는 한 명의 피아니스트가 앉아서 연주한다는 생각을 뒤집을 수 있도록 8명의 피아니스트가 뿔뿔하게 모여서 동시에 연주하는 편성을 구상했다. 마임적인 요소는 공연 시작과 피아노 연주 사이에 배치해 현대인들의 삭막한 일상을 보여주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예술의 쓸모'를 제시한다. 퍼포먼스와 관객 참여형 공연은 모두가 같이 즐기는 축제로 완성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공연에서는 피아노 연주가 근간이므로, 철저한 연습을 통한 연주자들의 앙상블과 음악적 표현력을 최대한 끌어내고자 노력하였다.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부연하여 설명해 보자면, 우선 8명의 연주자가 연습 시간을 계획하고 장소를 섭외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또, 피아니스트들에게 분장과 연기를 요구한다는 것은 또 다른 숙제이다. 오랜 시간 함께 활동하면서 쌓아온 신뢰와 경험으로, 세 번의 리허설은 진지하면서도 웃음이 넘쳐나는 즐거운 과정이었다. 8명이 한 대의 피아노 앞에 뿔뿔하게 자리를 잡고 서로의 손이 얽히고설키면서 연습을 한 첫날은 마치 실타래가 꼬인 듯 연주의 불편함을 토로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는 환경으로 서로가 손의 위치, 높낮이, 발란스 등을 하나하나 조율하면서 마치 지네의 수많은 발이 자연스럽게 움직이듯 앙상블이 매끄러워져 감을 알 수 있었다. 도입부 연기, 연주, 막간 연기, 연주 그리고 마무리 퇴장으로 연결되는 매우 이질적일 수도 있는 부분들을 적당한 시간 안배와 함께 '예술의 쓸모'라는 주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완성하는 작업이 중요했다. 완성작이 무대에 오르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연주자들에게 감정 몰입, 표정, 그리고



동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요구했다. 매 연습은 연주와 연기를 녹화해 모니터링을 하면서 확인과 수정을 거쳤다. 반복된 연습으로 모두가 작품에 스며들어 구성이 자연스러워짐으로써 작품은 완성에 다가섰다.

이번 공연의 주제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예술의 쓸모’이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은 이념적, 경제적 양극화 속에서 정말 팍팍하고 바쁘게 돌아간다. 많은 이들이 과거에 머물며 우울해하거나 앞선 미래로 불안하다. 스마트폰을 통한 SNS와 유튜브 중독은 도파민 과잉 분출로 인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에서 알 수 있듯이 스마트폰에 얼굴을 파묻고 위태롭게 걸어가는 모습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현대인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유일한 치료제는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유모차와 자전거라는 소품을 무대 위에 올려서 사실적이면서 집중을 유도한 장치들은 관객에게 공감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었다. 연주자들의 함성, 박수 유도, 셀카 촬영, 객석의 관객 촬영, 꽃다발 증정, 산타클로스의

선물 이벤트 등등 퍼포먼스를 적절히 배치해 모두가 함께 참여한 공연이었다.

관객의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었다. 연주자들의 의외 등장에 가벼운 웃음, 놀라는 탄식이 흘러나왔고 연기의 동작에 집중하는 긴장의 공기가 무대에 퍼졌다. 〈Hungarian Dance No.5〉(Johannes Brahms)에서는 관객과 연주자들이 한마음이 되어 박수로 박자를 맞춰 갔다. 12분 남짓한 짧은 공연은 관객들의 함성과 진심 어린 박수를 뒤로하고 다시금 무표정하게 스마트폰을 보면서 퇴장하는 것으로 종료됐다. 이날의 공연은 연주, 연기, 퍼포먼스, 무대효과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마무리됐다. 한 관객의 “아이고! 우짜노, 공연장에 피아노가 한 대밖에 없어서 서서 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데이”라는 말에 기획의 의도(한 대의 피아노는 한 명이 앉는다는 일반적 상식을 뒤집는)가 성공했음에 안도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공연장을 나섰다. ‘예술의 쓸모’를 향해 클래식스의 변화무쌍한 변신에 도전하는 무미건조팀의 앞으로 홍보를 기대해 본다.

부산예술인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청년 예술인 후원을 위한 기획전시 ‘fun_인연’

글_구본호 전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예술학 박사

연말이면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는 말을 많이들 한다. 다사다난(多事多難)은 여러 가지 일도 많고 어려움이나 탈도 많은 뜻이다. 행사도 많고 사건도 많았던 2024년이야말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70여 개의 아트페어에 관람 인원은 많았지만, 작품 판매는 저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연이은 경기 침체 등 2024년의 아쉬움이나 어려움이 올해까지 이어지지는 않을지 초조한 마음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한다. 사실 상공인들이 느끼는 경기 불안과 취업 준비생들의 취업 구멍은 어느 해에 비해 흐린 안갯속 시야다.

자욱한 안개 속 불투명한 가시거리는 예술인에게도 마찬가지다. 한 중년 예술인은 “언제나 IMF였고, 언제나 코로나 시기였다고들 하지만, 올해는 더 심한 해가 되지 않을까”하며 한숨을 내쉰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시작하는 사람들은 평소보다 더 힘들게 느껴진다. 부푼 꿈을 안고 밝은 미래를 향해 출발하지만, 일자리 찾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만큼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다.

전국 예술대학 현황을 보면, 290여 개의 예술대에 4,260여 개 학과가 있다. 28만 5,000여 명의 재학생 수로 통계된다. 졸업 후 예술 활동가 또는 관련 분야 취업, 다른 분야를 찾아 이직을 하기도 한다. 예술대 졸업 후 평균 약 20%의 취업률을 집계하고 있다.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 월수입이 100만 원 이하가 86.6%이며 미술, 음악, 무용, 국악, 연극 등 순수예술가로만 본다면 월 42만 원이라

고 한다. 그래서인지 예술 활동 외 타 직업 종사하는 비율이 46.5%다. 그 이유가 낮은 소득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또 예술인의 43.3%가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가장 높게 응답했다. 예술인 지원을 위한 법률 및 제도 정비가 17.7%, 예술 행정의 전문성 확보가 7.6%, 작품활동 공간·시설 확충이 7.3%의 순으로 나왔다. 예술인 활동을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면 30% 수준이다. 일반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비율이 90%인데 반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률은 27.6%,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률은 28.5%이다. 이는 활동 중 실업·상해 등 위기 상황 대처에 상대적으로 아주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사단법인 부산예술후원회에서의 특별한 기획전시는 이런 연유에서 이루어졌다. 부산법원 열린 문화공간에서 청년 예술인 후원을 위한 ‘fun_인연’은 2024년 11월 5일부터 28일까지 약 한 달간 열린 전시다. 선배 작가·기업인이 뭉쳐 청년 작가들의 출발을 위한 의미 있는 전시를 꾸민 것이다. 부산의 50~70대 중진 작가들이 작품을 기증하며, 기증된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 한다. 그 판매 후원금을 40세 이하 청년 예술인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판매처다. 판매가 되어야 후원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작품을 소장할 판매처는 미술에 관심 있는 일반 고객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부산의 기업들이다. 그래서 청년 예술인을 위해 중진 작가들과 기업이 꾸미는 재미있고 아름다운 인연 만들기인 셈이다. 작품을 구매한 기업은 중진 작가의

후원자가 되며, 판매금은 청년 작가의 후원금이 되는 지속 가능한 사회적 인연을 만들어 가는 순환구조의 특별한 전시다. 중진 작가들은 향후 작품의 유통과 소유권을 위해 작품보증서와 호당 가격 확인서 등을 판매처에 지원하는 등 꼼꼼함도 잊지 않았다.

전시 장소 또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부산고등법원에서 장소 후원으로 진행되었는데, 법원이라면 웬지 모르게 딱딱한 이미지를 가진 것이 통설이지만, 이러한 이질감은 미술을 통한 심리적 안정감과 아름다운 분위기를 조성하며, 미술 감상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오히려 배가시켜 준다.

참여 작가로는 강대진 강이수 권혁 김응기 류명렬 서은경 신홍직 양홍근 유진구 유진재 이상희 이성재 허중하 허필석 홍찬효 등 15명의 작가다. 부산, 서울뿐만 아니라 세계의 각종 아트페어에서 인기몰이하고 있는 저명한 부산의 대표적인 작가들이다. 이들은 각각 100호, 50호, 30호 상당의 작품을 한 점씩 출품해 총 40여 점이 전시되었다. 기업은 송일타울, 협성종합건설, 범양건설, DK.LOK, 대원플러스건설, 성우하이텍, 경동건설 등 많은 기업이 작품 구매 및 참여로 전시의 불을 피워주었으니, 후원금은 청년 예술가들에게 출발의 불씨가 될 것이다. 부산예술후원회는 2023년에 10명의 청년 작가에게 스페인, 오스트리아, 독일, 파리 등에 견문을 넓히기 위한 해외연수를 제공하였고, 2024년에는 5월부터 월 1회 버스킹 공연을 지원했기에 이번 후원도 기대가 된다.

전시 주제가 'fun_인연'이다. 'Fun'은 즐거움을 느끼며 좋은 시간을 보낼 때 쓰는 '재미있는'이라는 뜻이다. 인연(緣)은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 또는 어떤 사물과 관계되는



유진구_순환의공간, 3×2.44m, 판넬 위에 자개 칠, 2024

연줄을 뜻하는데, 인연의 인(人)은 결과를 낳기 위한 내적인 직접적 원인을 의미하고, 연(緣)은 이를 돕는 외적인 간접적 원인을 의미한다. 석가모니는 '모든 것은 인(因)과 연(緣)이 합해져서 생겨나고, 인과 연이 흩어지면 사라진다는' 말을 남겼다.

가수 이선희의 곡 「인연」이다. '약속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다시 보게 되는 그날/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남은 길을 가리란 길/인연이라고 하죠/거부할 수가 없죠/내 생애 이처럼 아름다운 날/또다시 올 수 있을까요/고달픈 삶의 길에/당신은 선물인걸/이 사랑이 녹슬지 않도록/늘 닦아 비출게요.'

이선희의 노래 역시 이런 '관계'나 '연줄'의 의미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fun_인연'은 청년 작가들의 '고달픈 삶의 길'에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중진 작가들과 기업인들이 꾸미는 '선물' 같은 재미있는 인연 만들기다. 부산의 예술은 이런 아름다운 인연 만들기가 있기에, 분명 흐린 안갯속에서도 젊은 작가들의 '생애 아름다운 날'은 지속될 것이다.

건축과 서예Ⅶ

근대 범어사의 위상을 반영하는
세 개의 현판

범어사 조계문



일심一心으로 진리의 세계에 들어서다

사찰로 들어서는 삼중문 제도는 대체로 고려 이후에 확립된 것이다. 첫 번째 문은 일주문(柱門)이고 그다음은 천왕문(天王門)이고 마지막은 불이문(不二門)이다. 일반적인 고건축물의 기둥을 서로 연결하면 그 외곽은 사각형이 되는 데 비하여 일주문은 일(一)자 형태를 이루며 일심(一心)을 상징한다.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기둥, 즉 일주(柱)처럼 보이는 독특한 구조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다. 천왕문은 사천왕이 사찰을 외호(外護)하는 문이다. 사천왕은 원래 고대 인도에서 숭배된 신(神)들 중 하나였으나 불교에 귀의하여 불법의 수호신이 되었다. 불교에서는 하늘을 육계(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의 28천으로 구분하는데 사천왕천은 육계의 첫 번째 하늘로 우리가 숨 쉬는 공간이다. 불이문은 진리가 하나임을 상징하는 문으로, 이 문을 지나면 빈부나 지위의 차별이 없는 평등한 세상, 진리의 세계에 이른다.

범어사 일주문에서 조계문으로, 보물 승격

범어사 일주문은 1614년 묘전화상이 창건하고 1694년에 증창한 것으로, 운수사 대웅전(1655년), 범어사 대웅전(1658년)과 더불어 부산에서 오래된 목조건축 중 하나이다.

1972년 6월 부산시 유형문화유산(제2호)으로 지정된 후 2006년 '부산 범어사 조계문'의 명칭으로 보물 승격되었다. 국가유산청이 2022-23년간 50여 개의

사찰 일주문 일괄 조사 결과로 순천 선암사 일주문, 합천 해인사 흥하문, 함양 용추사 일주문, 곡성 태안사 일주문, 하동 쌍계사 일주문, 대구 용연사 자운문, 순천 송광사 조계문 등 10여 점을 보물로 지정하기 전까지는 전국 유일의 보물 지정 일주문으로 그 명성을 지켜왔다.

기둥 2개만으로 지지하는 여느 사찰의 일주문과는 달리, 자연 암반 위에 돌기둥 4개를 세워 정면 3칸의 다포식 맞배지붕으로 축조된 범어사 일주문은 한국 사찰에서는 그 유례가 없는 독특한 구조와 아름다운 조형미를 갖추고 있다. 범어사 일주문에는 조계선종의 원류임을 상징하는 조계문(曹溪門)이라 편액되어 있다. 보물 승격 당시 일주문 중앙에 현괘되어 있는 현판명을 따라 '범어사 일주문'에서 '범어사 조계문'으로 지정 명칭을 변경하였다. 중앙 여칸의 조계문 현판은 관자가 없어 누구의 글씨인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1718년(康熙57)에 기록한 「범어사조계문증창량문록(梵魚寺曹溪門重棚樓門錄)」과

1720년(康熙59) 「범어사대웅전불상비로전불상향적전석정조계문석주사계석계개석통기

梵魚寺大雄殿佛像毘盧殿佛像香積殿石井曹溪門石柱四階石梯蓋石桶記」 및 1841년(道光21년) 「범어사조계문중수상량문 梵魚寺曹溪門重修上樑文」 등에 그 이름이 이미 나타나고 있어 역사적 연원이 깊다.



조계문 현판, 범어사성보박물관

| 기획연재

조계문 현판 좌우 협간에는 선찰대본산禪刹大本山과 금정산범어사金井山梵魚寺라는 대형 현판이 현래되어 있다. 금정산범어사의 좌우에는 ‘壬子小春 七十八翁 海壘堂’, 선찰대본산에는 ‘壬子小春下流, 七十八翁 海壘堂’이 관지되어 있어 조선왕조 말기에서 일제강점기에 활약했던 해사海士 김성근金聲根(1835~1919)이 1912년 음력 10월에 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선찰대본산_해사 김성근, 1912년



금정산범어사_해사 김성근, 1912년

범어사, 선찰대본산으로서의 위상을 갖추다

범어사는 19세기 말부터 이미 경내 암자에 선회禪會, 선사禪社를 개설하며 시대 변화에 대응한 근대 역사 의식과 역할 의식을 견지하는 한국 선불교의 수행 전통을 계승하고자 하였다. 그 중심에는 오성월의 후원과 경허의 활약이 절대적이었다. 1911년에 작성한 「범어사 선원 연기록 梵魚寺禪院緣起錄」(『범어사지梵魚寺誌』)에 의하면 근대기 범어사 최초의 선원은 1899년 음력 10월 금강암에 개설된 금강선사金剛禪社이다. 이후 1900년 안양암에 안양선사安養禪社, 1901년 내원암에 내원선사內院禪社, 1902년 계명암에 계명선사鷄鳴禪社, 1905년 내원선사, 1906년 원효암에 원효선사元曉禪社, 1909년 원응료에 원응선사圓應禪社, 1909년 대성암에 대성선사大聖禪社, 1910년 4월에는 금어선원金魚禪院을 개원하였다. 1899-1910년까지 범어사는 산내암자를 중심으로 역사적 혼돈기에 약화되어가던 불법과 선풍을 진작시키고 선종사찰이라는 정체성을 구축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일제강점기 1911년 6월 3일 제정 반포한 사찰령과 동년 7월 8일 발표한 사찰령 시행규칙에 의하면 전국 사찰을 30개 본산으로 나누어 운영케 했으며, 그 본사가 인근 지역 중소사찰을 관리하는 형식의 본말사本末寺 제도를 실시했다. 더불어 각 본산은 제1대 주지 취임 인가와 함께 해당 본산의 사법을 정하여 총독부 인가를 받아야만 했다. 매년 선사를 개설하며 선풍을 진작시켜 왔던 범어사는 1911년 전국 각처에 공문을 보내 선종수찰禪宗首刹이라 표방하였으며, 사찰령 체제의 사법에도

선찰대본산이라는 명칭을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범어사보다 먼저 인가받은 해인사(1912.7)와 통도사(1912.9)는 승찰대본산, 불찰대본산이라는 종지를 내세웠다. 이에 범어사는 오성월이 1911년 11월 17일에 주지 인가를 받은 이후 1912년 10월 15일 오성월의 단호한 의지로 선찰대본산이란 종지를 가지고 조선총독부의 승인을 받게 된다.



범어사 조계문_1902년, 세케노 타다시, 『조선고적도보』



범어사 조계문_1910년대 ©김한근

조계문의 세 현판, 근대 범어사의 자존감과 정체성

金井山梵魚寺 曹溪門 禪刹大本山

조계문에 현판된 세 개의 현판은 일제강점기 간섭과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범어사가 선찰대본산으로서의 사격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 왔던 역사적 자존감과 정체성을 대변한다.

조계문 명칭은 이미 1718년 「범어사 조계문 중창량문록」에 그 기록이 있으며, 세키노 타다시(關野貞)가 1902년 범어사 일대 건축물을 조사하고 찍은 사진(『조선고적도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조계문> 현판은 이후 다시 제작된 것이다. 범어사 최초 선원인 금강선사부터 10여 년간 선원을 이끌었던 오성월은 사찰령이 반포되자 범어사를 사찰법과 중법으로 선찰대본산이라 규정시켰다.

1912년 10월 총독부의 공식적인 승인 직후 당시 사찰 현판과 편액 서예로 명망 높았던 해사 김성근에게 글씨를 의뢰함으로써 지금에 이른다. 해사 김성근은 1862년 병과에 급제하여 예문관검열과

홍문관제학을 거쳐 1883년 전라도 관찰사를 역임, 1889년 이후 공조, 형조, 이조, 예조 등 각 판서 직책을 두루 거쳤다. 1902년 경운궁 중화전(中和殿) 영건도감(營建都監)에서 중화전의 현판을 담당하여 포상으로

숙마(熟馬) 한 필을 하사받았으며, 같은 해 고종의 육순을 기념한 고종임인진연도감(高宗壬寅進宴圖監)에서

「임인진연도병(壬寅進宴圖屏)」 제작에 관여하여 당상관 궁내부 특진의 포상을 받았던 문인으로 독립운동가

서재필의 외숙부이기도 하다. 서체는 웅건하며 미려하다 평을 들으며, 북송의 미남궁체(米南宮體)를 잘 썼을 뿐 아니라 불교와의 깊은 인연으로 전라도와 영남 지역 사찰에 많은 편액을 남기고 있다.

의성 고운사의 고운대암(孤雲大菴)과 연수전(延壽殿)(1904), 울진 불영사 극락전(極樂殿)(1912), 해남 대흥사 백설당(白雪堂),

동화사 편액(1905) 등에서 그의 글씨를 만날 수 있다. 한편, 해사 김성근 현판에는 해로당(海樓堂)이란 관지가

적혀 있는데, 鹵자 밑에 흙 토(土)자가 있는 염전(착박한 땅, 포로의 터전)이란 뜻의 특이한 글자여서 여타 자료에는

해황당(海皇堂), 해인당(海聖堂) 등 여러 오기(誤記)가 있다.

글_이현주 부산시 국가유산위원회

‘역사적 사실 소재’, 그리고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

2024년은 대한민국 문학사^ㅅ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문학인들은 물론 모든 국민이 그토록 원했던 노벨문학상 수상자 명단에 드디어 한국인이 당당하게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스웨덴 한림원은 2024년 10월 10일 소설가 한강^(54·여)을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발표, 한국 사회를 뿌듯하게 만들었습니다. 스웨덴 한림원은 한강을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강은 자신의 작품에서 역사적 트라우마와 보이지 않는 규칙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시적 산문을 썼다. 그리고 육체와 영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 사이의 연결에 대한 독특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시적이고 실험적인 문체로 현대 산문의 혁신가가 되었다”라고요. 평생 언론인의 길을 걸어온 필자 또한 한강의 수상 소식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한국에는 내로라하는 작가들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노벨문학상과는 인연이 멀었습니다. 그래서 노벨문학상은 힘 있는 나라 작가들에게만 주어지는 ‘절대로 닿을 수 없는 저 높은 곳의 그 무엇’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런데 50대 여성으로 비교적 젊은 축인 한강이 받게 되었다는 ‘낭보^ㅅ’가 날아들었으니, 한국 사회가 들쩍 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1919년 인도의 타고르가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고, 1968년 가와바타 야스나리와 1994년 오에 겐자부로 등 두 일본작가가, 2012년엔 중국의 모옌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지만 아시아 지역의 여성작가로는 한강이 첫 수상자가 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한강은 역대 121번째이자 여성으로는 18번째 노벨문학상 수상자이며, 한국인으로는 2000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한국인이 문학상을 받은 것은 1901년 이 상이 처음 수여된 이후 123년 만의 일입니다. 노벨상 수상을 계기로 한강의 작품들은 지구촌 구석구석의 독자들에게 안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사람들과 대한민국은 K-팝 등 K-컬처에 이어 한강의 ‘문재^ㅅ’ 덕분에 ‘K-문학’까지 추동력으로 작용, ‘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도 한껏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출판계는 한글로 쓰인 한강 작품을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 자기네 말로 번역해서 읽을 수밖에 없게 된 점도 통쾌한 일입니다.

이는 언어적 한계에 부딪혀 세계 출판시장의 벽을 좀처럼 넘지 못하고 있던 한국 문학작품들이 손쉽게 세계 속으로 퍼져나가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강 덕분에 한국인은 모국어로 된 노벨문학상 수상 작품을 읽는 ‘호사’를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한강 덕분에 한글이 세계 속의 당당한 언어가 되는 ‘언어적 특권’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노벨문학상 수상이 가져다주는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스웨덴 한림원의 일정에 따라 한강은



12월 10일 스웨덴 스톡홀름의 랜드마크인 콘서트홀Konserthuset에서 열린 '2024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 열화와 같은 박수 속에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노벨상 메달과 증서Diploma를 받았습니다. 한림원 종신위원인 스웨덴 소설가 엘렌 맛손은 시상에 앞선 연설에서 한강의 작품들에 대해 “형언할 수 없는 잔혹성과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진실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검은 드레스 차림으로 수상한 한강은 영어로 “문학 작품을 쓰는 일은 필연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언어는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묻고, 언어는 이 행성에 사는 사람의 관점에서 상상하기를 고집하며, 언어는 우리를 서로 연결한다”라고 문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강은 시상식 이후 스톡홀름 시청사 ‘블루홀’에서 국왕과 총리, 스웨덴 한림원 등 관계자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연회에 참석했고, 앞서 6일에는 자신

의 소장품 찻잔을 노벨상 박물관에 기증했으며, 12일에는 왕립극장The Royal Dramatic Theatre에서 열린 낭독 행사에 참석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스웨덴 공영방송사 SVT와의 인터뷰에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를 집필한 과정을 언급하면서 한강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조각을 모으고 싶었다. 살해당한 사람들의 일기를 읽었고, 이는 생존자로서의 죄책감이었다. 어떤 사람은 저나 제 가족 대신 죽었을 수도 있다고 느꼈다”라고요.

한강은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4학년 때인 1992년 연세춘추 주관 연세문학상에서 시 부문 운동주 문학을 수상하면서 작가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잠시 잡지사 샐터 기자로 근무하다 계간지 ‘문학과 사회’ 24호에 「얼음꽃」 등 5편을 발표하며 시인으로 등단, 본격적인 작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다 1994년 서울신문 신춘문에 소설 부문에 단편소설 「붉은 닻」이 당선되면서 소설 쪽으로 천착하게 됩니다. 2007년부터 2018년까지는 서울예술대 문예창작과 전임교수로 교단에 섰지만 결국 전업 작가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장편소설로는 『검은 사슴』(1998) 『그대의 차가운 손』(2002) 『소년이 온다』(2014) 『작별하지 않는다』(2021) 등이 있고, 소설집은 『여수의 사랑』(1995) 『내 여자의 열매』(2000)

『채식주의자』(2007) 등이 있습니다. 또 산문집·동화집·시집으로는 『내 이름은 태양꽃』(2002) 『가만가만 부르는 노래』(2007) 『서랍에 저녁을 넣어 두었다』(2013) 등이 있고, 중·단편 소설로는 「붉은 닻」(1994) 「어둠의 사육제」(1995) 「회복하는 인간」(2001) 「작별」(2017) 등이 있습니다. 한강의 수상 경력은 화려합니다. ‘제25회 한국소설문학상’(아기부처·1999년) ‘제29회 이상문학상’(몽고반점·2005년) ‘제13회 동리문학상’(바람이 간다, 가라·2010년) ‘만해문학상’(소년이 온다·2014년) ‘황순원 문학상’(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2015년) ‘맨 부커 국제상’(채식주의자·2016년) ‘김유정 문학상’(작별·2018년) ‘제13회 김만중문학상 소설부문 대상’(작별하지 않는다·2022년) ‘메디치 외국문학상’(작별하지 않는다·2023년) ‘삼성호암상 예술상’(2024년) 등에 이어 노벨상까지 섭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한강의 노벨상 수상에 대해 매우 떨떠름해하거나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의 대표작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와 제주 4·3 사건을 소재로 다룬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한강의 역사관이 비틀어졌다는 지적들이 제기된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동료 작가들도 한강의 노벨상 수상에 대해 날 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칼럼니스트 김규나 작가는 한강의 노벨상 수상 소식을 전해 듣고 SNS를 통해 다음과 같이 한강과 스웨덴 한림원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수상 작가가 써 같긴 ‘역사적 트라우마 직시’를 담았다는 소설들은 죄다 역사 왜곡이다. 『소년이 온다』는 오싷팔이

꽃 같은 중학생 소년과 순수한 광주 시민을 우리나라 군대가 잔혹하게 학살했다는 이야기이다. 『작별하지 않는다』 또한 제주 사삼 사건이 순수한 시민을 우리나라 경찰이 잔혹하게 학살했다는 썰을 풀어낸 것이다. (중략) 한림원이 저런 식의 심사평을 내놓고 찬사 했다는 건, 한국의 역사를 뺏고 모르는 것이고, 그저 출판사 로비에 놀아났다는 의미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중략) 그렇게 거짓 역사는 진짜로 박제되어 버리겠지” 각 언론들이 한강을 비판한 데 대해 ‘수구 작가’ 운운하며 비난하자 김규나는 예상했다는 듯이 또 한 편의 글을 SNS에 올려 이렇게 응대했습니다. “부러워서 안 축하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 자랑스러워하고 싶고 축하하고 싶습니다. 문단에서 내쳐지고 미움받기 싫어요. 하지만 문학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으로서, 문학은 적어도 인간의 척추를 곳곳이 세워야 한다고 믿는 못난 글쟁이로서,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단지 한국인이기 때문이라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을 누군가는 말해야 하고 알려야 하잖아요. 픽션이니까 역사 왜곡도 괜찮아, 한국이 탔으니까 좌우불문 축하해줘야 해, 하시는 분들은 문학의 힘, 소설의 힘을 모르셔서 하는 말입니다” 한강의 노벨상 수상 소식을 듣고 필자는 그의 소설 『소년이 온다』를 서점에서 구입,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소설임에도 왜 5·18이 일어났는지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로지 피해

자의 편에만 서 있었습니다. 필자는 언론인으로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육하(六何)원칙에 기반한 기사(記事) 작성을 평생 업(業)으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강의 소설에서는 '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읽는 내내 "왜 광주 시민이 들고일어났지?", "왜 진압군이 파병되었지?", "왜 때렸지?", "왜 죽였지?"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일면서 답답해졌습니다. 5·18 진상을 잘 모르는 한국인 독자들도 많은데, 한국 사정을 잘 모르면서 이 소설을 접한 다른 나라 독자들은 그 '왜'를 찾느라 참 많이 헤매고 당황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시위대가 무장하고 조직적으로 대항하는 등 소요 사태가 위험수위를 벗어났다는 판단하에 대규모 진압부대를 투입한 사실이 정부 문서와 증언을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설은 오직 시민군과 광주 시민의 입장에만 서서 진압군과 국가를 규탄하고 저주하거나 분노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작가는 에필로그에서 12살 때 5·18 관련 사진첩을 보고 엄청난 충격에 빠졌고, 이때부터 광주 상무관과 망월동 묘지를 찾고 5·18 관련 단체의 증언과 자료집 등을 취재해서 소설을 썼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취재 대상에 관련 국가기관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의 반열에 오른 한강의 출판 무대는 '좁은 한국'이 아닌 '드넓은 세계'로 넓혀졌습니다. 따라서 역사적 사실을 편견으로 재단하고 소설의 소재로 삼는다면 전 세계 독자가 한국과

한국인을 오해하고 혐오하게 만드는 '흥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문학의 힘을 이용한 '언어적 폭력'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설에서는 진압군이 총검으로 여대생 젓가슴을 도려내고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죽였다거나, 기관총까지 난사했다는 당시 유언비어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맨몸으로 항의하는 군중에게 발포해 이십여 분 만에 백여구의 시신이 도로에 널브러졌고, 모두 몰살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고도 적고 있습니다. 소문은 사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저자는 틀린 사실을 독자들에게 억지로 믿게 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는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드러나거나 숨겨진 '올바른 역사적 사실'이 위대한 작가의 심오한 인생관과 풍성한 상상력의 터널을 거쳐 천 개 만 개 갈래의 다양한 주제로 다루어질 때, 독자들의 가슴은 큰 감동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적 사실이 비틀려서 작품의 소재가 되는 것을 극히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곧 작가 자신의 양심을 비틀어 버리는 것이고, 독자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역사적 사실이 오도됨으로써 빚어지는 '후유증'도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이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한 차기작이 나온다면 어떤 '메시지'를 세상의 독자들에게 던질까요? 한강의 새 작품, 어떤 주제가 다뤄질지 벌써 궁금해집니다.

글_심수화 언론인·칼럼니스트

제24회 오늘의 작가상 수상 최시복(공예) 이지훈(한국화)

부산미술협회는 '제24회 오늘의 작가상' 본상 수상자로 최시복(공예), 청년 작가상에 이지훈(한국화)을 선정했다. 오늘의 작가상은 매년 투철한 작가 정신으로 부산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지역 미술 분야 발전 및 활성화에 이바지한 미술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상이다. 2024. 12. 5.(목) 오전 10시 부산예술회관 4층 회의실에서 정희옥을 포함한 심사위원 7명 김준오 김효정 김흥식 박현주 조현서 탁경아의 심사로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였다. 본상에 8명, 청년 작가상에도 8명이 응모하여 총 16명의 작가를 대상으로 심사하였다. 심사기준은 정량적 평가 30%, 정성적 평가 70%로 하였으며 심사기준표에 따라 개별 채점하였고, 공정한 채점을 위하여 후보들의 작가 역량, 작업 우수성 등을 치열한 토론의 과정을 거쳐 선정하였다. 심사위원장 정희옥은 심사평에서 본상 수상자인 최시복 작가는 '공예의 현대성과 작가의 철학적 사유를 바탕으로, 부산미술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인 세계적 활동 가능성에 무거운 무게를 두었고, 또 청년 작가 이지훈은 '풍경에 대한 초현실적 접근 방식과 부산의 지역성과 세계성을 동시에 겸비한 작가'로 수상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작가들에게 창작의 열정이 식지 않고 계속되도록 응원한다고 전했다. 시상식은 25년 1월 23일 오후 3시 부산예술회관 1층 공연장에서 열리는 (사)부산미술협회 제92차 정기총회에서 진행되며, 수상전은 올해 7월에 선보일 예정이다.



최시복(공예)



이지훈(한국화)

부산꽃예술작가 신임회장, 최정애 선출



부산꽃예술작가협회는 부산 지역의 꽃예술 작가들을 위한 단체로 작가들의 권익과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작품을 전시하고 홍보한다. 지난해 12월 11일 제21회 부산꽃예술작가협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제10대 회장으로 최정애를 선출했다. 주요 공약은 ▷소외계층 봉사활동(장애인 등) ▷시민대상 플라워아트 체험 ▷한국 꽃예술의 전통문화 발전계승 ▷국제 꽃예술 문화교류 ▷초·중·고 동아리활동 봉사지도(청소년 꽃다발만들기 대회) ▷각 단위협회와의 문화교류 및 세미나 개최 등이다. 이번 회장 선출에는 세 명의 후보자가 출마했으며, 총회에서는 대의원 수 38명 중 27명이 참석해서 찬성 25명의 투표로 선출되었다.



**유령도시
정안용 개인전**

2024. 12. 22.(일) ~ 1. 3.(금)
갤러리영영

이번 전시는 부산 지역 소멸이라는 현 재진행형 이슈를 시각화하여 관람객들에게 문제의식을 환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전시 '유령도시'를 통해 정안용 작가는, 사라져가는 도시의 흔적과 함께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 및 지역 사회의 재발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디지털과 아날로그, 빛과 어둠이라는 이중적 상징을 활용하여 현대 도시가 가진 복합적 현실을 다루며, 개인과 사회의 역할을 되짚어 보게 한다. 이 전시는 부산의 미래를 향한 질문이자, 지역이 잃어가는 것들에 대한 기록이다.

문의 010-8391-4788



연극 <이프온리>

2024. 11. 1.(금) ~ 1. 5.(일)
평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3시, 오후 6시/
일요일 오후 2시, 오후 5시
부산메트로홀

영화 <이프온리>와는 또 다른 감동을 선사하는 연극 <이프온리>가 이번 달 5일까지 부산메트로홀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연극 <이프온리>는 사소한 일로 다툰 뒤 재운과 헤어진 후, 수진은 점쟁이의 도움으로 단 3일간 1시간씩만 재운을 다시 만나게 되지만 어떤 이유에 선지 재운은 수진을 기억하지 못한다. 점쟁이와 함께 그의 기억을 돌리기 위한 수진의 슬프면서도 웃긴 상황들을 다루는 로맨틱코미디 연극 <이프온리>는 추운 겨울을 조금은 따뜻하고 특별하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1600-0316



**전통예술
<굿이로구나>**

1. 4.(토) ~ 1. 11.(토) 오후 3시
국립부산국악원

새해맞이 <굿이로구나>는 국립부산국악원의 정월 행사로, 2017년부터 전통 문화 예술의 원형이 담긴 '굿'을 무대화하여 예술적 가치를 재발견하고자 기획된 공연이다. 이번 을사년을 맞이하여 국립부산국악원에서는 우선 신년맞이 명복을 기원하는 <동해안별신굿>과 <남해안별신굿>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무대를 1월 4일에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 11일에는 근심과 격정으로 어려움에 빠진 한국을 배경으로 우리나라 전역의 사자들이 한데 모여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이야기를 소재로 한 <창작연희극 백수지왕>이 공연될 예정이다.

문의 051)811-0114



뮤지컬
〈얼음공주〉

1. 11.(토) ~ 1. 12.(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
해운대문화회관

안데르센 원작 동화 『눈의 여왕』을 모티프로 재탄생한 〈얼음공주〉는 얼음왕국으로 붙잡혀간 동생 ‘카이’를 구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겔다’의 여정을 그린 뮤지컬이다. 백색의 세계에서 펼쳐지는 짜릿하고 아름다운 무대는 관람객의 오감을 자극하고, 가수 출신의 배우가 선사하는 명품 노래와 연기는 원작의 감동과 환상적인 세계관을 유감없이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추운 겨울 가족과 함께 ‘겔다’의 감동적인 여정에 빠져봄으로써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금 새겨보는 기회를 가져보길 바란다.

문의 051)749-7651



희박한 고요
전윤정 개인전

2024. 12. 14.(토) ~ 1. 12.(일)
소비지 갤러리

소비지 갤러리는 1월 12일까지 ‘일상 속 낯섦’을 그리는 전윤정 작가의 부산 첫 개인전 ‘희박한 고요’를 개최한다. 무표정한 얼굴들이 만들어내는 감정의 부재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내면의 이질감을 탐구하는 이번 전시는 평온함과 불안함이 충돌하여 이질적인 내면의 파동을 일으킨다. 표현적으로 고요해 보이지만, 인물들의 주변과 그 이면에 감춰진 내면은 오히려 요동치면서 고요는 희박해지고 동시에 이질적으로 다가온다. 즉, 작가는 고요함에 완전한 침묵이 아닌 어딘가 낯설고 흔들리는 희박한 고요를 담은 것이다.

문의 070-8287-3835



2025 부산시민회관
신년음악회

1. 17.(금) 오후 7시 30분
부산시민회관

새해를 기원하는 〈신년음악회〉가 부산시민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연에는 우리나라 한국모크의 대가 정태춘, 국악계의 이단아 이희문, 정가 보컬리스트 하윤주 등 인기스타가 대거 출연할 예정이다. 또한 연희양상블 [궁궁]의 신나는 풍물 연주와 세계 최초의 택견비보이 [트래블러크루] 등도 함께 해 이번 음악회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 예정이다. 이렇듯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다채로운 공연과 더불어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의 멋스러운 국악 연주가 어우러지면서, 이번 신년음악회는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는 모든 이들에게 힘찬 응원과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051)630-5200



겨울을 품은 편지

2024. 11. 18.(월) ~ 1. 24.(금)
감만창의문화촌

겨울은 추위와 고독을 연상케 하지만 그렇기에 온기와 포용을 떠올리기도 좋은 계절이다. 감만창의문화촌 상상갤러리에서는 겨울의 따스함과 온기를 전해주는 세 명의 작가 작품들이 전시 중이다. 신예지, 이무빈, 김정아 작가가 참여한 '겨울을 품은 편지' 전시는 온전한 행복을 담은 따스한 메시지를 건네며, 모든 이들의 겨울 일상이 조금은 포근해질 수 있기를 희망하는 듯 안온하면서도 푸근한 작품들로 가득하다. 건물 로비부터 계단, 사랑방, 나눔방 등 여러 공간에 스며든 다채로운 겨울 온기를 느껴보고 싶다면 올 초에는 감만창의 문화촌을 방문해 보는 건 어떨까.

문의 051)745-7246



木墨地韻: 목묵지운

2024. 12. 21.(토) ~ 1. 25.(토)
갤러리 서린 스페이스

전시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고, 전통적인 재료와 그 가치를 되새기고자 한다. 대지의 양분과 맑은 이슬, 따뜻한 햇빛을 머금고 자란 나무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성장하고, 적절한 관리 아래 수확되어 다시 숲으로 양양분을 돌려준다. 이러한 나무는 장인의 손길을 거쳐 수십 번의 변형을 통해 한국 전통 문방사우의 '한지'와 '묵'으로 재탄생한다. 이러한 창작의 도구들은 왕현민 작가와 유현 작가의 손을 거치면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데 그러한 경이의 순간을 이번 전시를 통해 경험해 보길 바란다.

문의 051)742-7422



선에서 면으로 최병소·윤형근 2인전

2024. 12. 23.(월) ~ 1. 31.(금)
데이트갤러리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데이트갤러리에서 최병소, 윤형근 2인전 '선에서 면으로'를 개최한다. 한국 실험 미술의 정신을 대표하는 최병소 작가와 한국의 현대사와 미술사의 중심에서 한국적이면서도 독창적인 예술세계를 널리 알린 윤형근 작가의 2인전으로, 이번 기획 전시에서는 끊임없이 실험하고 저항하여 일궈낸 한국 미술 역사의 두 주역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아울러 태생적으로 가슴에 면면히 이어온 한국의 고유한 정신들이 어떻게 작품에 반영되고 표출되고 있는지 실감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0507-1334-9845



**꿈의 여정
김덕기 개인전**

2024. 11. 18.(월) ~ 2. 8.(토)
서울아트스페이스

김덕기는 어느 누구의 화풍이나 어느 시대의 유파를 연상시키지 않으면서 자신 고유의 화면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 그것은 쉽고 만만한 그림처럼 보이지만 똑같이 모사하기 쉽지 않은 치밀하고 정밀한 그림이다. 거짓을 허용하지 않는 순도 높은 명량함의 광채로 가득한 그의 그림에 실은 깊은 슬픔과 고독이 채색되어 있음을 알게 된다. 이 행복의 명도는 더욱 애뜻한 아득함으로 다가오고, 이는 하나의 형상이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초월하는 초현실성을 획득하는 순간으로 조명할 수 있다.

문의 051)731-5878



**DIS:
세상이 아닌 모든 것**

2024. 12. 14.(토) ~ 2. 16.(일)
부산현대미술관

사이-파이Sci-fi 다큐멘터리 작품 '세상이 아닌 모든 것'은 트랜스-아포칼립스 Trans-Apocalypse 관점에서 호모 사피엔스로서 인간종의 자연사를 비선형적으로 기술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인간 존재와 이 세계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시도한다. 작품은 여러 단편적인 서사들로 구성된 에피소드를 통해 거대한 자본주의의 역사적 변화 속에서 인간의 존재론적 의미, 인류 문명의 진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진보란 회복의 순간들로 점철된 변화와 혁명의 이야기, 다시 말해 시간은 곧 정치적인 도전이라고 작품은 말한다.

문의 051)220-7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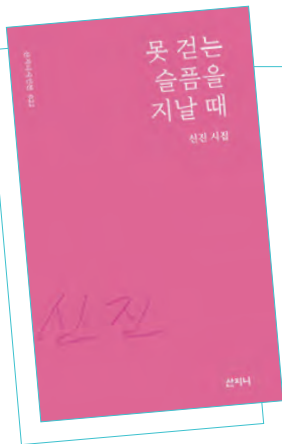


**LEO KIM
감정의 스펙트럼**

2024. 12. 20.(금) ~ 2. 28.(금)
갤러리조이

LEO KIM은 사랑의 감정을 강렬하고 독립적인 시각으로 그려낸다. 그의 그림 속 레오파드 무늬는 단순한 외적 감인함을 넘어서, 자기 확신과 자유로움을 내포하고 있어 깊은 여운을 남긴다. 스펙트럼 시리즈에서는 사랑이 단순한 감정적 충족이나 상호 교환이 아닌 곁핍을 나누고 채워가는 과정으로, 사랑은 결코 완전한 충족을 이룰 수 없는 욕망의 추구이며, 불가능한 것에 대한 갈망의 표현임을, 이 갈망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중요한 의미라는 사랑의 다층적인 면을 작가는 심플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문의 051)746-5030



못 걷는 슬픔을 지날 때 신진/산지니

시인은 깊은 자기성찰과 사회현실의 비판적 사고로 상하좌우의 반목과 존중을 연결하고, 멀고 가까운 시간대의 순환으로 공감과 위안을 준다. 못 걷는 슬픔은 같은 처지의 작은 어깨 나뉘므로, 멈춤으로 끝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희망을 기억할 수 있으며(‘못 걷는 슬픔을 지날 때.’), 앞서있는 것과 뒤에서 어정쩡하게 받쳐주는 것들 또한 열등이 아닌 필요이며(‘오른손잡이의 오류.’), 정체성이란 자기의 역할 수행임을 알려 준다.(‘기러기와 오리.’) 또한, 삶은 현실에 발을 두고 있음을 혁명 본색으로 길게 말하고 있다. 흐물거리는 정신이 죽비로 맞은 듯 눈이 맑아진다. ‘시인은 경험을 강조하는 시인이다. 일상의 순간을 구체적인 언어로 포착하고, 삶의 철학을 역설의 단어로 풀어낸 시를 통해 진솔한 깨우침을 독자에게 맑은 눈으로 전한다.’ 머릿속에 아름답지만 슬픈 장면이 겹쳐 지나간다.



사무치는 봄날에 윤승선/가담출판사

남들보다 특별히 잘난 자랑거리도 없고 소심한 성격의 작가와 우리는 많이 닮아있다. 작가의 글은 ‘개울에 물이 흘러가듯 스르륵 읽히는, 밑줄 그을 부분 없이 단숨에 잘 읽힌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년은 천진한 아이의 솔직함과 세월 속의 지혜와 너그러움이며, 자신과 관계를 머물게 하는 것은 대화와 진정한 사과(謝罪)라고... 또한 ‘힘들고 극단적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는 건 사소한 일상’이라고 알려준다. 세상에 없는 것 또는 잊음으로 자주 아프게 흔들린 마음에 작은 다독임을 받았다. ‘작가는 남실남실 명주바람이 불고 화르르 쏟아져 내리는 꽃잎에 봄 길을 걷고 싶다. 삶의 마지막 모습이 끝끝내 벚꽃처럼 화사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벚꽃처럼 화사하게 웃어본다.’ 왠지 가슴 한켠이 짙하게 밀려온다.



말하는 전봇대 오선자 동시집·김세영 그림 / 아동문예

어린이와 어른을 위한 동시로 1부_ 「피약별 술래」에서는 일상의 모습과 느낌을, 2부_ 「목욕탕 벽보」에서는 다양한 부산의 이 모양 저 모양과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 전봇대로 배려의 모습을, 3부_ 「두근두근 칙칙뚝뚝」에서는 할머니와의 따뜻한 체온을, 4부_ 「좋은 날」에서는 소녀였던 증조할머니와 가족에 대한 몽실한 그리움을 쉬운 말로 엮었다. 아이 때부터 어른과 노인의 시간적 흐름이 가족으로 이어짐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도 세월의 흐름으로 변하는 듯하지만 서로 연결되어 숨 쉬듯 편안하다. 시인은 아홉 번째 동시집을 발간하며 ‘이 땅의 손자 손녀와 동심을 머금은 어른이 읽는 동시집 『말하는 전봇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희망을 전한다.

부산예술회관 서포터즈 **예담 3기** 모집

모집기간 2025. 1. 7.(화) ~ 1. 10.(금)

활동기간 2025. 2.~11.(총10개월)

주요활동

- 월 3건 콘텐츠 제작 및 홍보단원 활동
- 부산예술회관 행사 홍보물 업로드 및 홍보
- 행사 현장방문 취재 및 리뷰작성
- 부산예술회관 행사, 전시, 공연 등 현장 스태프 활동
- 예술아카데미 홍보 / 각 협회 행사 홍보

혜택

- 매달 소정의 활동지원금 / 활동 수수료 등 지급
- 우수활동자에 한해 상금 (상품권 등) 및 상장지급
- 공연, 전시 초대권 (티켓) 지급

접수문의

070-7747-0396

대상

예술 활동에 관심있는 누구나
(예술가, 일반인, 직장인, 대학생 등)
-부산지역 거주자 우대

우대사항

SNS를 활발하게 활용하는 자
파워블로거 / 인플루언서

모집인원

20명

지원포지션

- 디자인 (포스터, 카드뉴스 등 웹 홍보물)
- 영상촬영 및 편집 (영상 제작 등)
- 오피니언 (글쓰기, 기고)
- 작품 제작 (그림, 웹툰, 일러스트 등)

접수방법

구글폼 지원서 양식 작성 제출 (온라인)

결과발표

1.31.(금) 개별통지



신청 바로가기 >



월간 『예술부산』

광고지면안내

What?

- 예술 관련 단체 또는 기업 광고
- 각종 행사, 공모, 전시, 공연, 신간 광고 외

Where?

- 표2 (앞표지 안쪽)
- 표2대면 (앞표지 안쪽 우측면)
- 표3대면 (뒷표지 안쪽 좌측면)
- 표3 (뒷표지 안쪽) *마감!*
- 표4 (뒷표지) *마감!*

How?

- 광고 사이즈 : 가로 200 × 세로 260mm
- 문의 : 051)612-1372 / artbusan1997@naver.com

“월간 『예술부산』은”

1997년 창간된 **종합 예술 잡지**입니다.

부산에서 전시·공연되는 예술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예술인들의 활동과 업적을 아카이브하며, 부산 예술계의 수준 높은 예술문화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부산만이 아닌 **전국으로 배부**됩니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및 전국 지회·지부, 언론사, 국립중앙도서관 및 부산의 도서관, 부산은행 전 지점, 부산의 주요 갤러리·공연장, 공공기관, 시·구청, 일반 정기구독자 등.

MECENAT & SUBSCRIPTION

부산의 예술문화를 사랑하는 당신을 메세나로 모십니다.



메세나 광장

MECENAT

『예술부산』은 메세나가 되어주신 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에 힘입어 그동안 기반을 닦았습니다. 『예술부산』과 함께 부산의 예술 문화 발전에 앞장서는 동반자가 되어주실 메세나를 찾습니다.

메세나 광장

방 성 빈 BNK부산은행 은행장

정 은 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예술부산』을 후원해주시면

- 첫째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1항 5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1항 5조에 의거하여 세제혜택을 드리며,
- 둘째 사단법인 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문화행사에 우선적으로 초대하고,
- 셋째 월간으로 발간되는 『예술부산』을 보내드립니다.

정기구독

SUBSCRIPTION

월간 『예술부산』은 부산 시민과 예술문화인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가고자 합니다. 서면 영광도서에서 해당 호를 구매할 수 있고(정가 5,000원) 1년 정기구독을 신청하면 50% 할인된 금액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예술부산』 정기구독 신청

전화 051)612-1372

팩스 051)631-1378 또는

이메일 artbusan1997@naver.com을 이용하여 구독신청을 하시고 1년간 구독회비 30,000원을 입금하시면 해당 호부터 보내드립니다.

부산은행 101-2024-8255-00

예금주 (사)부산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예술부산』은 여러 장르에 걸친 예술문화의 향기를 더욱 많은 회원들과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역사박물관

우리 자본시장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위 치 | 부산국제금융센터 (BIFC) 51층

방문 전 관람문의 (051-662-2559)

관람료는 무료이며, 토/일 ·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문화예술로 쌓아온 57년 부산은 행복합니다

문화로 웃음을 기웠습니다
예술로 일상을 빛냈습니다

부산의 행복이 문화예술로
더 커질 때까지
지난 57년처럼, 멈추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BNK가 함께 가겠습니다

BNK 부산은행



15th Busan Mera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18th Busan Fireworks Festival



29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12th Busan Comedy Festival



25th Busan Rock Festival



12th Busan Biennale

정가 5,000원



9 4771976 974008
ISSN 1976-9741

[이 광고는 생성형 시로 제작되었습니다]